

2021

정책연구 2021-01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진 조원지 · 나정호 · 박로운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1-01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조원지 | 부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5장
공동연구나정호 | 부연구위원 | 제3장 4절 일부, 제5장 일부
박로운 | 전문연구원 | 제2장 2절, 제4장 1절 일부

자문위원태희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윤지 | 농촌진흥청 연구관
김주현 |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원
차승은 | 수원대학교 교수

연구관리 코드 : 21JU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여성농업인 이해 및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내용 및 방법	13
4. 연구 추진체계	14
제2장 농업·농촌 및 여성농업인 현황	17
1. 농업·농촌 현황	17
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특성	28
제3장 여성농업인정책 현황	49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49
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51
3.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61
4.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정책	71
제4장 여성농업인 생활실태 및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87
1. 전라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87
2.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114
3. 소결	125
제5장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131
1. 비전 및 추진체계	131
2. 전략과제	134
참고문헌	163

표목차 | Contents

〈표 1-1〉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	7
〈표 1-2〉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내 역할 및 지위	9
〈표 1-3〉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문화	11
〈표 1-4〉 여성농업인정책	12
〈표 2-1〉 전국 및 전북 농가 및 농가인구	17
〈표 2-2〉 연령별 농가인구분포	18
〈표 2-3〉 전국 및 전북 다문화가족 농가 및 농가인구	19
〈표 2-4〉 전국 및 전북 귀농인수	20
〈표 2-5〉 농가 가구원수	20
〈표 2-6〉 연령별 농가 혼인형태	21
〈표 2-7〉 전국 및 전북 주종사산업별 농가가구	22
〈표 2-8〉 전국 및 전북 전겸업별 농가인구	23
〈표 2-9〉 연령별 농가인구의 농업종사 기간	24
〈표 2-10〉 농가가구의 농업종사 가구원 수	24
〈표 2-11〉 영농형태별 농가	25
〈표 2-12〉 연령별 농가인구의 농림업 이외의 종사기간	25
〈표 2-13〉 경영주 연령	26
〈표 2-14〉 경영주 성별·영농형태	26
〈표 2-15〉 경영주 농업경력	27
〈표 2-16〉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27
〈표 2-17〉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비교	29
〈표 2-18〉 연령 및 지역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직위	29
〈표 2-19〉 여성농업인의 농외 활동 참여 및 희망분야	31
〈표 2-20〉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단체 가입률	32
〈표 2-21〉 여성농업인 연금 가입 현황	32

〈표 2-22〉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인식	33
〈표 2-23〉 여성농업인의 교육 경험 및 희망 교육내용	35
〈표 2-24〉 여성농업인의 보유 자격증 및 자격증·역량	36
〈표 2-25〉 여성농업인 문활활동의 어려움	37
〈표 2-26〉 여성농업인의 보육시설 이용 및 방과 후 돌봄	38
〈표 2-27〉 농촌보육시설의 필요조건	38
〈표 2-28〉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에서 어려움	39
〈표 2-29〉 농업·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고충	40
〈표 2-30〉 여성농업인의 시급한 정책 이슈	41
〈표 2-31〉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지도	44
〈표 2-32〉 여성농업인의 정책 만족도	46
〈표 3-1〉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72
〈표 3-2〉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추진과제	73
〈표 3-3〉 성주류화 정책 강화 추진과제	73
〈표 3-4〉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체계 개선 추진과제	74
〈표 3-5〉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75
〈표 3-6〉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76
〈표 3-7〉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78
〈표 3-8〉 여성농업인 사회기여 활성화	78
〈표 3-9〉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80
〈표 3-10〉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81
〈표 3-11〉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81
〈표 3-12〉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의 지역공동체 내 안정적 정착	83
〈표 3-13〉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83
〈표 3-14〉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83
〈표 4-1〉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진단 항목 및 세부내용	88
〈표 4-2〉 일반적 특성	90

〈표 4-3〉 회원가입 단체 가입 여부	96
〈표 4-4〉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의 교육 경험	98
〈표 4-5〉 제도 및 시설 인지 여부	110
〈표 4-6〉 제도 및 시설 이용/참여 여부	111
〈표 4-7〉 면접조사 주요 질문사항	114
〈표 4-8〉 면접조사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116
〈표 4-9〉 초점면접조사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117
〈표 4-10〉 주요 결과	118
〈표 5-1〉 전략과 과제의 단계적 설정	132
〈표 5-2〉 정책사업 우선순위	133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14
〈그림 3-1〉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55
〈그림 3-2〉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방향	57
〈그림 3-3〉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58
〈그림 3-4〉 제4차 전북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방향	62
〈그림 3-5〉 제4차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년~2020년)	62
〈그림 3-6〉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관련 부서 현황	69
〈그림 4-1〉 농업 주력 품목(중복응답)	91
〈그림 4-2〉 여성농업인 논 및 논 외 농지 소유 여부	92
〈그림 4-3〉 농사일 담당비중 및 직업적 지위 인식	92
〈그림 4-4〉 농사일 담당활동	93
〈그림 4-5〉 농사 이외 일 참여 기간	94
〈그림 4-6〉 활동 참여 여부	94
〈그림 4-7〉 향후 활동 의향	94
〈그림 4-8〉 농업생산 외 소득 활동 희망 이유	95
〈그림 4-9〉 농업생산 외 소득 활동 장애 요인(중복응답)	95
〈그림 4-10〉 단체 활동 참여정도	97
〈그림 4-11〉 가장 유익한 교육(중복응답)	99
〈그림 4-12〉 향후 희망 교육(중복응답)	99
〈그림 4-13〉 교육 참석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중복응답)	100
〈그림 4-14〉 보유 자격증 및 역량	100
〈그림 4-15〉 가장 중요한 자격증 및 역량(중복응답)	101
〈그림 4-16〉 건강상태 및 최근 3년간 아플 때 이용한 의료기관	102
〈그림 4-17〉 의료기관 치료 시 고충	103

〈그림 4-18〉 농촌에 필요한 여성을 위한 시설(중복응답)	103
〈그림 4-19〉 보육시설 및 방과 후 돌봄	104
〈그림 4-20〉 국민연금(농어민연금) 가입현황	105
〈그림 4-21〉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현황	105
〈그림 4-22〉 문화시설 이용 횟수 및 이용 장소	106
〈그림 4-23〉 문화행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106
〈그림 4-24〉 직업인으로서 농업고충(중복응답)	107
〈그림 4-25〉 농업, 농촌에서 여성으로서 고충	107
〈그림 4-26〉 여성농업인 현재 지위	108
〈그림 4-27〉 여성농업인 향후 지위	108
〈그림 4-28〉 여성 활동성 증대 필요 사항(중복응답)	109
〈그림 4-29〉 제도 및 시설 만족도	112
〈그림 4-30〉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급 해결 과제(중복응답)	113
 〈그림 5-1〉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비전 및 전략과제	 132

1

장

연구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여성농업인 이해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와 함께 농업 분야 여성의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삶의 질 증진 등을 목표로 2000년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1~2005)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되고 있음
- 농촌의 고령화·과소화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여성의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삶의 질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한 5개년 법정계획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있음
- 농업·농촌 고령화와 식품소비 트렌드 및 산업 변화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로 농업 주종사자 중 절반 이상인 여성농업인은 그간 농가주부, 보조영농자로 인식되었으나,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역할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위치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수립·시행의 변곡점이 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 여성농업인정책 한계와 개선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은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경영주 인식이 낮은 비율을 보여주며, 특히 이들은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81%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가치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관심은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판매 분야 등으로 확대되며, 농업 이외 생산 소득 분야의 경영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어 농업·비농업 부문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의 역량과 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자녀보육·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에 한계를 보이는 농촌사회의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은 여성농업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보여줌
- 급속하게 고령화·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더 가중되고 농촌사회의 급변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변화하고 있는 전북 농업·농촌 사회와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맞춰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왔던 전북 여성농업인 정책을 돌아보고,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 이에 따라, 전북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기존 여성농업인 정책을 개괄하고, 전라권 여성농업인 실태와 전북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여성농업인 이해 및 선행연구 검토

가. 여성농업인의 개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인’을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는’ 기본이념(제2조)하에, 제3조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은 제3조에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칭하고 있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전라북도 여성농어업 육성 조례」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연구 여성농업인은 「전라북도 여성농어업 육성 조례」를 근거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나.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

- 농업·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에 관심이 주목되면서 여성농업인이 현재 농업분야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짐
-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참여 정도, 농사와 가사 병행에 따른 여성농업인들의 노동부담, 농외활동 참여 여부, 연령·생애주기별 영농활동 변화 등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옴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관련 연구들은 남성농업인의 노동공급 공백을 채우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특징 지워지며, 가사일과 농사일 병행에 따른 체력적인 부담을 주 이슈로 논의됨
- 이들 연구들은 농촌 여성의 농업활동, 농업 이외의 활동 참여정도,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살펴보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함
- 여성농업인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따른 정책 욕구와 현재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음

〈표 1-1〉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

저자	주요내용
엄진영 외 (2018)	- 인구구조, 영농유형의 변화 등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으나 복지영역을 제외한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들의 낮은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의 정책으로 논의됨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하여 통계자료분석, 계량모형 설정 및 정량적 분석, 면접조사 등을 활용함 -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강화를 통한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사업, 세대별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등의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개선, 정책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
엄진영·김선웅 (2019)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을 결정하는 생산품목, 가구형태, 농축산물 판매금액, 건강 등 요인을 분석하는데 2008년과 2013년 여성농업인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변화를 살펴봄 - 세대별 여성농업인정책이 요구되지만 연령, 계층과 무관하게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 장비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남성농업인 노동공급 공백을 채우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빈번하지만 수작업은 대부분으로 여성농업인은 남성에 비해 참여가 많음. 여성농업인의 가사일과 농사일 병행은 체력적 부담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최정신 외 (2017)	- 농촌여성의 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등 일환으로 지역사회활동 참여 의식과 적극적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 지역사회활동은 연령·생애주기별 지역사회활동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태희원 (2017)	- 지자체별 농촌지역 개발정책은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는 미흡함. 지역사회리더 육성을 위해 농촌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성인지적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리더 역량강화, 마을리더 활동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안석 외 (2019)	‘여성농업인육성법’제8조에 의거하여 다양한 분야(가구, 경제, 의료, 복지 등)에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함 - 생애주기별, 유입배경 및 영농규모에 따른 다양한 여성농업인(일반, 귀농귀촌, 다문화)의 삶의 형태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정교한 정책 발굴, 추진이 필요함
안수영·권용대 (2015)	- 여성농업인의 영농특성, 농업농촌사업 관심도와 농업·마을조직 참여도가 정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여성농업인 대상 농산물유통, 마케팅 전략, 회계 관리, 기업관련 법률 등 교육지원, 마을 공동 농외소득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여성의 적극적 참여 유도, 농외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 추진 마련 등 필요 강조
조경옥(2016)	전북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40~50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정비, 여성농업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추진 등 제시

저자	주요내용
김문희·김태종 (2020)	•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대상 연구를 활용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함 • 10개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토픽 당 10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4개의 연구주제로 분류됨

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지위

- 여성농업인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남성주의적 농업·농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은 농업 경영 관련, 지역사회 개발 등 참여 및 의사결정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연구들은 여성농업인의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에 따른 여성의 농업인으로서 정체성, 직업적 자부심 등에 주목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함
-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영농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의 변화를 강조하며, 시기별 차이를 반영한 여성농업인의 리더십교육, 농업전문기술교육, 지역사회활동 참여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지원 필요함을 강조함
- 반면, 여성농업인은 여성관련 단체, 센터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정체성 확립, 역량 강화, 삶의 질 제고 등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와 기관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농업분야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성을 제시함

〈표 1-2〉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내 역할 및 지위

저자	주요내용
최정신 외 (2017)	• 농촌여성의 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 질 증진 등을 위해 지역사회활동 참여 의식과 적극적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여성대상 심층면접 결과를 근거로 연령·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참여 유형별 지역 사회활동 요구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제안
태희원(2017)	• 농촌지역 개발정책 확대에 비해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는 미흡함.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리더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 • 성인지적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마을리더 역량강화, 마을리더 활동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제안함
강혜정 (2013)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농가자산·재무 의사결정 등 참여도가 낮음 • 영농경력, 가구원 수, 농업교육 횟수, 농업관련 조직 수, 지역사회 활동 단체 수 등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에 영향을 미침 • 공동경영주, 여성 명의 재산, 여성전업농 대상 교육 강화, 가사노동 경감 등을 위한 정책 필요를 강조함
태희원(2018)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연구로, 여성농업인의 접근성 증진,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충,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농업인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필요 • 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 강화, 여성농업인센터 공통사업 선정 및 지침 개선, 여성농업인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중앙정부로 이관, 중간지원조직 설치, 농림부 고시 개정 등 제시
황미진 외 (2017)	• 한국생활개선회의 유사단체와 연합활동에서 보조적 역할, 교육내용 차별화 부재,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부족 등을 제시함 • 여성농업인 조직의 정체성 확립, 성인지 향상, 내적 성장, 행정조직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최정신 외 (2017)	• 60세 미만 농촌 여성 지역사회활동은 여성관련단체, 종교·시민사회단체, 농·축협조합원, 마을발전모임 중심이며, 여성관련단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동체意識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연령을 고려한 방안 모색 필요
양순미 (2019)	• 결혼이주여성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민참여 의식과 사회연계망 사회자본, 신뢰, 지역사회지지, 출신국, 교육수준, 육아 및 가사책임 등이 해당됨 • 리더십교육은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사회 통합, 멘토링 강화, 직업기술교육부터 다양하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마련 필요

저자	주요내용
안세아 (2020)	♦ 직업적 지위에 대해 농업공동경영주로 절반이상으로 인식하나 연령별로 차이를 보임(5,60대 농업공동경영주 인식 비율이 가장 높음) ♦ 5,60대의 농업 전문가 희망도, 직업적 자부심 등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지역사회활동 참여희망도 높게 나타남 ♦ 여성농업인센터 조례 제정 및 활성화, 자생적 모임·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전문 인력풀 확보 등 지원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지원이 필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9)	♦ 농촌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성의 주도적 입장과 적극적 참여와 사회구조적 여건, 사회적인식의 변화 필요 ♦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을사업 여성추진위원회 비율 보장, 여성 포함 마을현장활동가 육성 및 교육체계 수립, 마을공동체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제안함

라.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문화

-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생활편의와 복지 등 열악한 생활 인프라에 따른 농촌 및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문화 실태, 여성농업인의 욕구 등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음
- 농촌사회의 생활인프라 중 보육, 돌봄, 일·가정 균형, 여가, 복지시설, 건강 등을 중심으로 복지, 문화 활동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농촌사회의 열악한 기초 생활 인프라에서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삶의 질과 일상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제안들을 제시함

〈표 1-3〉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문화

저자	주요내용
김하정 (2016)	◆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삶의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건강진단 및 상담, 일상생활관리, 영양·식생활, 운동·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증진행위는 삶의 만족도와 양적 관계를 보임 ◆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영양·식생활, 운동·활동 장려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강조
이종운·김영숙 (2015)	◆ 농촌여성노인의 연령, 소득, 학력, 배우자유무, 가구유형 등과 사회적 고립감, 우울, 자아통합감, 가족기능 등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울의 영향력이 큼 ◆ 우울 감소를 위한 자아통합감·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가장 중요한 지지 자원이자,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문제의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가 필요함
진혜민(2019)	◆ 여성농업인의 정책적 수요는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 다음으로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임 ◆ 복지정책으로 농번기 공동마을급식, 행복바우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강조함
안세아 (2020)	◆ 여성농업인의 일-생활 균형 정의와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충남지역의 생애주기별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살펴봄 ◆ 일-생활 균형은 일, 여가, 가족과의 조화로운 생활의 필요성 강조 ◆ 농업노동 감소,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단기, 중장기적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가족참여/거점형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백선정 외 (2018)	◆ 경기도 농촌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은 원아 모집, 교사 인건비, 교사채용 등으로, 교사의 경우 등하원차량 동승, 부모는 자녀를 위한 사회문화인프라부족, 등하원 차량 운행시간 또는 거리에 대한 불만족을 보임 ◆ 농촌지역 교사 처우 개선, 차량운행 및 동승전문인력 지원 등 농촌지역 공보육 확충, 지역 어린이집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운영구조 등에 대한 정책이 요구됨

마. 여성농업인정책

- 여성농업인정책 연구는 (여성)농업인정책 현황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지원 한계를 주로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농업인정책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지원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언급함
-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업·농촌 여건 변화와 함께 여성농업인정책 방향과 추진체계의 한계를 제시하며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등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함

〈표 1-4〉 여성농업인정책

저자	주요내용
강종원(2017)	◆ 농업인 육성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아닌 남성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 강원도 지역사회 리더 및 지역개발사업의 주체, 농업생산/경영자로서 전문인력화, 지역별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지역특화사업 주도자, 청년여성 지역농업서비스 지원조직 육성, 전담지원조직 구성 등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함
강혜정 외 (2019)	◆ 여성농업인정책 추진과정에서 총괄·전담하는 부서 부재는 안정적인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역할과 가치 변화를 반영한 여성농업인의 현장밀착형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가 시급함
오미란 외 (2015)	◆ 제1~3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정책 성과와 과제 평가, 농업농촌 변화를 반영한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할 수 있는 정책 제시 ◆ 여성농업인 정책의 환경변화 반영, 농업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추진, 미래지향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 발굴 필요성 강조
윤영미·조영재 (2019)	◆ 농업농촌 성장 동력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여성농업인과 청년여성농업인 현황, 정책 동향,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청년여성농업인과 농촌 복지 정책과 사업 제시 ◆ 복지 및 사회안전망, 교육 및 보육 부문 정책, 일자리 부문, 문화·여가 부문 세부정책과제 제시

3. 연구내용 및 방법

-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가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은 남성 중심 농업인정책의 한계, 현장 밀착도와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제5차 전북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에 앞서 변화하는 전북 농업·농촌 환경 파악과 여성농업인정책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여성농업인의 주체화 및 전문화, 양성평등화 농업·농촌, 여성고령화, 여성농업인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북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변화하는 농업·농촌 여건을 파악하고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 및 결과를 살펴보고,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를 통하여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정책의 방향 수립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함
-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 중 전북과 전남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전라권 여성농업인의 원자료 재분석을 통한 실태와 전북 여성농업인 대상 면접조사·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식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전북 여성농업인의 농업인으로서, 농촌사회 일원으로서 주체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현황조사, 전문가자문을 통해 전북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연구 추진체계

○ 다음은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 추진 절차를 도식화하였음

〈그림1-1〉 연구 추진체계

구분	주요내용	연구방법
1단계 문제의식	· 농업·농촌 환경 및 여성농업인 역할 변화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앞서 전북 여성농업인 정책 진단 및 개선의 필요성 인식	문제의식과 정리
2단계 논리검토	· 전북 농업농촌 및 여성농업인 정책 동향	선행연구 행정자료 내용검토
3단계 실태조사 분석 및 여성농업인 수요조사	·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전라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생활실태 및 정책 욕구 파악 · 전북 여성농업인 대상 면접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전북 여성농업인의 농업인으로서 고충과 정책욕구 파악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면접조사 및 초점집단 면접조사
4단계 지원 방안 구상	· 정책방향 및 주요 전략 제시	방향구상· 방안제안
5단계 정책제안	· 개선 중점정책 · 개선 정책사업	사업 및 자료제시

2

장

농업·농촌 및 여성농업인 현황

Jeonbuk Institute

-
1. 농업·농촌 현황
 2.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특성

제2장 농업·농촌 및 여성농업인 현황

1. 농업·농촌 현황

- 전국 농가와 농가인구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기준 1,007,158 가가와 2,244,783명으로 나타남
- 농가인구의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2016년 51.1%에서 2019년 51.0%로 농가인구의 절반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전북 역시 농가는 2016년 98,930가구에서 2019년 94,735가구, 농가인구는 2016년 224,661명에서 2019년 204,12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농가인구는 전체 농가 인구 중 2016년 50.7%, 2017년 50.8%, 2018년 50.9%, 2019년 50.8%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 전국 및 전북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가구,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농가	전국	1,068,274	1,042,017	1,020,838	1,007,158
	전북	98,930	96,780	94,935	94,735
농가인구	전국	2,496,406	2,422,256	2,314,982	2,244,783
	전북	224,661	214,548	208,600	204,124
농가인구(남)	전국	1,221,825	1,184,279	1,130,435	1,099,942
	전북	110,612	105,488	102,385	101,376
농가인구(여)	전국	1,274,581	1,237,977	1,184,548	1,144,841
	전북	114,049	109,061	106,215	103,748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6~2019)

- 연령별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인구 중 5.5%를 차지하고 있는 유소년인구(0~14세) 136,483명이 2019년 기준 97,429명(4.3%)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체 농가인구 중 2016년 기준 1,353,755명(54.2%)에서 2019년 1,101,645명(49.1%)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규모는 2016년 1,006,166명으로 전체 농가인구 중 40.3%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46.6%인 1,045,708명으로 증가하여, 농촌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또한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꾸준히 감소하여, 유소년인구는 2016년 13,740명에서 2019년 10,842명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115,840명에서 2019년 95,230명으로 감소함
- 이와 달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95,08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42.3%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 98,050명까지 증가하여 48.0%로 나타나 고령화를 확인할 수 있음

〈표 2-2〉 연령별 농가인구분포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전국	2,496,406 (100.0)	2,422,456 (100.0)	2,314,982 (100.0)	2,244,783 (100.0)
	전북	224,661 (100.0)	214,548 (100.0)	208,600 (100.0)	204,124 (100.0)
0~14세	전국	136,483 (5.5)	123,848 (5.1)	108,859 (4.7)	97,429 (4.3)
	전북	13,740 (6.1)	11,103 (5.2)	11,212 (5.4)	10,842 (5.3)
15~64세	전국	1,353,755 (54.2)	1,288,217 (52.4)	1,171,404 (50.6)	1,101,645 (49.1)
	전북	115,840 (51.6)	106,687 (49.7)	100,481 (48.2)	95,230 (46.7)
65세 이상	전국	1,006,166 (40.3)	1,030,190 (42.5)	1,034,718 (44.7)	1,045,708 (46.6)
	전북	95,080 (42.3)	96,757 (45.1)	98,908 (46.5)	98,050 (48.0)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6~2019)

- 농촌으로 신규 유입되는 여성들은 국제결혼에 따른 결혼이주여성과 귀농 여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농가는 2016년 다문화농가는 12,827가구, 다문화농가 인구는 57,202명에서 2019년 12,456가구, 54,198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전북의 경우, 다문화농가와 다문화농가인구는 2016년 기준 1,667가구, 7,6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은 2016년보다 소폭 감소한 1,640가구, 7,440명으로 나타남

〈표 2-3〉 전국 및 전북 다문화가족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가구,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농가	전국	1,068,274	1,042,017	1,020,838	1,007,158
	전북	98,930	96,780	94,935	94,735
농가인구	전국	2,494,406	2,422,256	2,314,982	2,244,783
	전북	224,661	214,548	208,600	204,124
다문화농가	전국	12,827	12,386	12,646	12,456
	전북	1,667	1,589	1,651	1,640
다문화농가인구	전국	57,202	55,501	55,782	54,198
	전북	7,688	7,180	7,419	7,440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6~2019)

- 귀농인은 2016년 기준 13,019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11,50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감소세를 보임
- 전북 귀농인은 2016년 1,273명에서 2019년 1,327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남녀 각각 2016년 856명, 417명에서 2019년 896명, 431명으로 다소 증가함

〈표 2-4〉 전국 및 전북 귀농인수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전국	13,019	12,763	12,055	11,504
	전북	1,273	1,374	1,335	1,327
남성	전국	8,759	8,509	8,265	7,891
	전북	856	884	903	896
여성	전국	4,260	4,254	3,790	3,613
	전북	417	490	432	431

출처: 통계청, 귀농인·귀촌인통계(2016~2019)

- 농가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561,776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인 가구는 198,189가구, 3인 가구 132,789가구 등 순으로 나타남
- 전북 역시 2인 가구가 54,538가구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 가구가 20,489가구, 3인 가구 10,016가구로 나타남

〈표 2-5〉 농가 가구원수

(단위: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전국	198,189	561,776	132,789	114,404
전북	20,489	54,538	10,016	9,691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9)

- 연령별로 농가의 혼인상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2-6〉과 같음
- 20대의 경우, 전체 중 다수인 101,434명이 미혼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미혼이 62,112명, 기혼 33,329명, 배우자있음 30,875명 등 순으로 나타남
- 40대 이상은 기혼자의 수가 가장 많은데, 40대는 118,411명, 50대 366,121명, 60대는 604,170명, 70세 이상 752,203명으로 집계됨
- 60대 이상은 타 연령대에 비해 사별 농가인구가 많았으며, 특히 70대 이상은 211,014명으로 가장 많음
- 전북은 20대와 30대는 미혼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각각 20대 대다수인 7,448명, 30대는 4,086명으로 나타남

- 30대의 경우는 기혼인 농가인구가 3,114명으로 미혼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40대와 50대는 혼인상태 중 기혼이 각각 12,044명, 32,5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60대와 70세 이상 역시 기혼 상태가 각각 53,448명, 70,28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0세 이상 사별한 농가인구는 19,258명으로 나타남

〈표 2-6〉 연령별 농가 혼인상태

(단위: 명)

구분		미혼	기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19세미만	전국	54,264	46	46	0	0
	전북	5,069	0	0	0	0
20대	전국	101,434	5,534	5,152	154	228
	전북	7,448	579	554	0	25
30대	전국	62,112	33,329	30,875	369	2,084
	전북	4,086	3,114	3,023	30	61
40대	전국	33,656	118,411	109,279	1,258	7,875
	전북	3,181	12,044	11,005	169	869
50대	전국	12,547	366,121	34088	9,054	16,260
	전북	1,255	32,500	30,391	657	1,452
60대	전국	3,079	604,170	547,331	45,401	11,438
	전북	276	53,448	47,651	4,471	1,325
70세 이상	전국	446	752,203	537,767	211,014	3,422
	전북	0	70,283	50,659	19,258	366

출처: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 전국과 전북 주종사산업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구 2,147,353명 중 주종사산업이 농업인 종사자는 1,453,217명으로 67.7%에 해당되며,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는 491,969명으로 22.9%를 차지함
- 성별에 따르면 남성 농업종사자는 농업종사자 1,453,217명 중 47.5%에 해당되는 690,481명, 여성은 762,736명으로 52.5%로 농업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전북의 경우, 농업을 주 종사산업으로 하는 농가인구는 141,003명으로 전체 농가인구 193,282명 중 73.0%에 해당되고, 전북은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전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에 종사하는 전북 여성 농가인구는 73,768명으로 전체 농업 종사자 141,003명 중 52.3%에 해당하며, 남성 농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2-7〉 전국 및 전북 주종사산업별 농가가구

(단위: 명)

구 분	전 국			전 북		
		남	여		남	여
15세 이상 인구	2,147,353	1,050,247	1,097,105	193,282	94,351	98,931
농업	1,453,217	690,481	762,736	141,003	62,235	73,768
농업이외	491,969	279,367	212,604	34,956	19,989	14,966
임업 및 어업	14,998	9,275	5,723	693	346	347
제조업	92,246	58,660	33,587	5,619	3,329	2,900
건설업	58,051	52,875	5,176	4,960	4,659	301
도소매업	72,175	34,386	37,789	4,882	2,68	2,273
숙박 및 음식점	58,275	17,358	40,917	4,771	1,554	3,127
기타산업	196,224	106,813	89,412	14,03	7,493	6,538
종사 안 함	202,167	80,401	121,766	17,325	7,128	10,197

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9)

- 2019년 전·겸업 농가를 살펴보면, 전국 1,007,158가구 중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582,851가구로 57.9%를 차지한 반면 42.1%는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있는 겸업농가로 나타남
- 전북은 94,735 농가가구 중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구(61,949가구)의 비중이 65.4%로 나타났으며, 전국에 비해 전업농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8〉 전국 및 전북 전겸업별 농가가구

(단위: 가구)

구 분	농 가	전 업	겸 업
전 국	1,007,158	582,851	424,307
전 북	94,735	61,949	32,786

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9)

- 15세 이상 농가인구의 연령별 영농활동 종사기간을 살펴본 결과, 종사한 기간이 없다고 응답한 농가인구 중 20대가 89,2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0세 이상이 56,281명, 15세~19세 미만 53,440명, 30대 51,772명 등 순으로 나타남
- 6개월 이상 종사한 이들은 575,400명으로 70세 이상 농가인구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다음으로 453,442명인 60대, 217,989명인 50대 등 순으로 나타남
- 6개월 이상 종사한 농가인구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본 결과, 50대 이상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60대 이상이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보여줌
- 전북의 경우,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없다고 응답한 농가인구는 전국과 동일하게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전국과 달리 19세 미만이 5,043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6개월 이상의 경우, 70세 이상이 53,783명으로 전체 인구 중 절반가량 차지하였으며, 60대가 40,818명으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전북의 경우, 6개월 이상 종사한 농가인구는 60대 이상에 집중하고 있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연령별 농가인구의 농업종사 기간

(단위: 명)

구분		농업이외 종사기간 없음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전국	15세~19세미만	53,440	621	116	133
	20대	89,260	9,121	2,736	5,851
	30대	51,772	17,553	7,847	18,268
	40대	30,528	30,006	31,876	59,656
	50대	24,647	47,937	88,394	217,989
	60대	16,563	37,789	9,945	453,442
	70세 이상	56,281	30,909	9,000	575,400
전북	15세~19세미만	5,043	26	0	0
	20대	6,900	358	159	599
	30대	3,603	1,122	603	1,872
	40대	2,952	2,832	3,328	6,113
	50대	2,077	4,211	8,009	19,458
	60대	1,197	3,572	8,136	40,818
	70세 이상	4,291	2,803	9,406	53,783

출처: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 농가가구 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2인이 644,832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은 299,884가구, 3인 51,857가구 등 순으로 나타남
- 전북 역시 2인이 60,51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인이 29,776가구로 나타남

〈표 2-10〉 농가가구의 농업종사 가구원 수

(단위 :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전국	299,884	644,832	51,857	10,585
전북	29,776	60,518	3,848	592

출처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 영농형태별 농가를 살펴보면, 논벼가 393,841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채소·산나물이 229,377가구, 과수 170,688가구, 식량작물 95,471가구 등 순으로 집계됨
- 전북 또한 논벼가 48,945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채소·산나물 19,912가구, 과수 8,232가구 등 순으로 나타남

〈표 2-11〉 영농형태별 농가

(단위: 가구)

구 분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과수	축산	기타
전 국	393,841	95,471	229,377	170,688	53,098	64,684
전 북	48,945	5,871	19,912	8,232	7,165	4,610

출처: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 연령별 농림업이외 종사기간을 살펴본 결과, 농가가구 중 50,60대는 각각 148,040명, 113,421명으로 6개월 이상 농가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0대 역시 6개월 이상이 148,0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70세 이상의 경우 3~6개월 가구가 16,95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 또한 40, 50, 60대 모두 6개월 이상이 연령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각각 6,907명, 11,217명, 6,356명으로 나타남
- 70세 이상은 3~6개월 미만이 2,212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2-12〉 연령별 농가인구의 농림업 이외의 종사기간

(단위: 명)

구분		농업이외 종사기간 없음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전국	15세~19세미만	53,800	74	57	379
	20대	63,207	831	1,382	41,547
	30대	33,154	1,306	2,317	58,764
	40대	64,480	3,017	5,689	78,881
	50대	204,333	9,584	16,712	148,040
	60대	451,091	16,448	26,289	113,421
	70세 이상	686,134	12,457	16,958	37,100
전북	15세~19세미만	5,069	0	0	0
	20대	5,498	0	112	2,417
	30대	3,441	189	227	3,342
	40대	7,029	428	861	6,907
	50대	19,923	703	1,912	11,217
	60대	43,696	1,111	2,560	6,356
	70세 이상	65,560	682	2,212	1,828

출처: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 경영주 특성을 살펴본 결과, 70세 이상 경영주가 461,53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23,712가구인 60대, 169,863가구 50대 등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경영주 중 70세 이상이 44,153가구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가 28,642가구, 50대가 15,832가구 등 순으로 나타나 전국 및 전북 모두 경영주의 고령화를 확인할 수 있음

〈표 2-13〉 경영주 연령

(단위 : 가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전국	612	6,247	45,192	169,863	323,712	461,531
전북	51	820	5,236	15,832	28,642	44,153

출처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 남성 경영주와 여성 경영주의 영농형태를 차이를 살펴보면, 논벼로 각각 320,226가구, 73,615가구가 해당되며, 남성 경영주의 경우, 다음으로 채소·산나물이 178,397가구, 과수 147,416가구 등 순으로 나타남
- 여성 경영주는 논벼 다음으로 식량작물이 23,408가구, 과수 23,272가구 등 순으로 나타남

〈표 2-14〉 경영주 성별·영농형태

(단위: 가구)

구분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과수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축산
남자	320,226	72,630	178,397	147,416	31,991	6,130	10,221	49,613
여자	73,615	23,408	5,980	23,272	10,053	822	1,64	3,486

출처: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 농업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영주는 753,432가구였으며, 93,147가구가 10년~15년 미만, 78,848가구 5년~10년 미만 등 순으로 나타남
- 전북 역시 20년 이상의 경영주는 71,960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함

〈표 2-15〉 경영주 농업경력

(단위 : 가구)

구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전국	29,471	78,848	93,147	52,361	753,432
전북	3,864	7,954	6,929	4,028	71,960

출처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 경영주 연령별 경지 규모를 살펴보면, 29세 이하 경영주 다수가 1.0ha 미만을 소유하였으며, 다음으로 3.0~5.0ha 미만으로 나타남
- 30대 역시 1.0ha미만 경작지를 소유한 경영주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3.0ha가 1,011가구로 나타남
- 40대 이상 경영주 모두 1.0ha 미만 경지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40대는 28,907가구, 50대 139,708가구, 60대 212,185가구, 70세 이상은 350,682가구로 나타남
- 1.0~3.0ha미만 경지를 소유한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91,839가구로, 3.0~10.0ha미만은 60대가 28,446가구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0ha이상은 40대, 50대, 60대의 소유 가구가 각각 1,141가구, 3,580가구, 3,661가구로 타 연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음

〈표 2-16〉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단위: 가구)

구분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경지 무소유	75	398	983	2,615	2,968	1,553
경지 소유	538	5,849	44,210	167,247	320,743	459,976
1.0ha 미만	294	3,822	28,907	139,708	212,185	350,682
3.0ha 미만	41	1,011	9,415	49,077	76,453	91,839
5.0ha 미만	111	431	2,536	9,900	16,915	11,792
10.0ha 미만	44	291	2,212	7,019	11,531	4,989
10.0ha 이상	49	290	1,141	3,580	3,661	675

출처: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2.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특성

-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와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사회의 삶의 실태를 살펴봄
- 여성농업인이 가계 영농활동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농사일 비중 정도를 살펴본 결과, 2013년, 2018년 모두 전반적으로 25%~75%미만으로 나타남
- 전체 농사일 중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30대 이하의 경우 2013년과 2018년 모두 25%~50%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5% 미만, 50~75% 미만 등 순으로 나타남
- 2018년도 3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절반가량이 농사일 담당 비중을 25%~50%미만으로 응답하였으며, 2013년에 비해 50%~75%미만으로 응답한 이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4,50대 여성의 경우, 2013년 2018년 모두 여성농업인의 80%이상이 25%~75%미만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에 비해 2018년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50%~75%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25%~50%미만은 다소 증가함
- 60대 여성농업인 응답에 따르면, 2013년 농사일 담당 비중 정도는 50%~75%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2018년은 25%~50%미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차지함
-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은 2013년과 2018년 모두 농사일 담당 비중이 7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여성에게 일상생활에서 영농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3	2018	2013	2018	2013	2018	2013	2018	2013	2018
25% 미만	29.2	34.1	5.9	10.6	4.9	8.9	5.0	5.9	9.1	6.8
25%~50% 미만	38.5	46.3	36.1	40.4	29.2	44.6	25.0	46.5	14.9	26.6
50%~75% 미만	25.5	15.7	48.6	43.7	55.0	37.5	46.5	30.9	32.9	18.8
75% 이상	6.5	3.2	9.4	2.3	10.9	8.5	23.6	16.6	42.9	47.2

자료: 2013년,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종사상 지위를 ‘무급 가족종사자’로 주로 인식하는데, 2013년과 2018년 결과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인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응답한 비율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018년도 응답비율은 2013년도에 비해 증가함
- 타 연령대에서는 2013년, 2018년 모두 60대가 50대 이하 여성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4,50대는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8〉 연령 및 지역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직위

(단위: %)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3	2018	2013	2018	2013	2018	2013	2018	2013	2018
경영주	3.8	2.2	10.6	4.2	9.1	9.2	24.0	17.7	39.4	48.0
공동경영주	13.5	9.2	27.0	21.9	29.6	17.8	21.4	14.4	10.5	7.4
가족종사자 (유급)	3.4	5.6	3.4	3.3	1.8	4.2	1.8	2.3	2.4	0.6
가족종사자 (무급)	79.3	82.9	59.1	70.6	59.3	68.8	51.9	65.7	43.4	44.0

자료: 2013년,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의 농외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여성농업인의 32.1%가 농업 생산 이외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농외 활동은 농산물 판매가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농업임금노동, 농산물가공 등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 유형에 따르면 다문화여성은 일반농, 고령농, 귀농여성농업인과 비교 시 시간제근무가 2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농업임금노동으로 나타남
- 연령별 30대, 40대 및 50대 농외활동 참여 여성농업인 비중은 40% 가량 차지하였으며, 6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30%대를 나타냈으나, 70대 이상은 2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60대 이하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외활동 중 농산물판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농업임금노동, 시간제근무, 농산물가공, 자영업·취업 등으로 나타남
- 이와 달리, 70대 이상 여성은 농업임금노동이 1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농산물판매(11.2%)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은 절반 이상이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을 희망하였으며, 판매, 농업임금노동, 가공 등에 관심을 보임
- 다문화여성은 희망하는 농외활동으로 자영업·취업(47.0%), 시간제근무(32.6%)를 응답하였으며, 30대 이하 여성 또한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제근무(26.4%), 자영업·취업(35.3%)을 상대적으로 크게 희망함
-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외활동으로 농촌관광을 응답하였으며, 특히 귀농 여성농업인(18.0%), 40대 이하 여성(20.5%)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9〉 여성농업인의 농외 활동 참여 및 희망분야

(단위: %)

구분		연령					유형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일반	고령	다문화	귀농
참여 현황	있음	39.8	40.5	43.3	34.0	21.0	32.1	24.8	38.2	28.6
	농산물판매	17.5	20.6	26.1	21.0	11.2	18.7	13.8	9.2	11.0
	농업임금노동	11.1	16.3	21.9	20.3	13.7	17.7	16.0	12.0	15.8
	농산물가공	5.6	10.3	9.8	7.8	2.3	6.5	3.2	1.4	4.5
	시간제근무	13.8	10.5	7.7	4.6	1.0	4.4	1.7	22.2	9.4
	자영업·취업	8.2	14.1	5.4	2.9	0.3	3.6	1.4	2.2	2.3
	농촌관광	1.0	1.6	1.2	0.7	0.0	0.6	0.0	2.3	0.8
희망 분야	있음	76.5	76.8	75.3	69.6	44.1	62.4	49.2	64.1	67.8
	농산물판매	42.2	54.8	53.8	45.9	27.7	41.9	31.3	17.2	46.2
	농업임금노동	15.9	22.9	24.9	30.0	20.3	24.6	23.2	10.7	23.2
	농산물가공	27.9	33.8	31.1	26.8	12.6	23.4	13.8	10.7	26.9
	시간제근무	26.4	21.1	12.5	12.2	3.3	9.9	4.8	32.6	13.2
	자영업·취업	35.3	38.6	25.5	14.2	5.0	15.3	7.5	47.0	28.8
	농촌관광	17.7	20.5	13.9	12.0	6.6	11.2	8.2	14.4	18.0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살펴보면, 여성·노인 관련 지역사회 단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친목, 동창회 등과 같은 계 또한 중요한 단체로 응답함
- 2018년 다문화여성을 제외하고 일반농, 고령농, 귀농인의 농협조합원 활동비율이 201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작목반/영농조합법인 역시 2018년 비율이 2013년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증가함
- 2018년 일반농의 2018년 여성농업인단체 참여 비율이 15.8%인 반면 2013년 25.5%로 이의 활동 참여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2-20〉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단체 가입률

(단위: %)

구분	일반농		고령농		다문화		귀농
	2013	2018	2013	2018	2013	2018	2018
없음	15.6	10.5	16.2	13.3	38.3	50.4	17.8
마을부녀회/노인회	78.9	80.8	79.5	79.3	14.2	41.0	59.8
농협조합원	30.5	57.3	19.9	45.9	1.0	11.4	47.4
작목반/영농조합법인	17.1	27.8	5.3	25.5	3.4	3.0	26.8
여성농업인단체	25.5	15.8	-	9.8	2.0	14.8	22.3
지역여성단체	9.0	10.4	-	6.7	9.2	7.3	10.8

자료: 2013년,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2018년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2013년 가입률과 비교 시 본인, 가족 명의 가입률과 미가입률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여성농업인 본인의 명의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비율(30.7%)은 2013년 (14.6%)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큰 변화를 보임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30대 이하 여성의 미가입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남편 명의 가입률은 6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여성의 미가입률은 여전히 3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1〉 여성농업인의 연금 가입 현황

(단위: %)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2013	2018	2013	2018	2013	2018	2013	2018
가입	본인 명의	14.7	28.0	13.7	37.8	16.5	36.5	12.1	21.1
	남편 명의	48.3	68.3	61.4	64.3	57.0	64.2	43.5	50.7
미가입		24.2	5.3	21.8	12.5	22.0	10.1	39.3	30.6

자료: 2013년,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사회에서 남성과 비교 시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예전보다 높지만 아직 남성보다 낮음’라고 응답한 여성은 62.2%, ‘여전히 남성보다 낮음’ 18.9%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음도 크게 인식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영농규모와 상관없이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영농규모가 클수록 이전보다 높아졌으나 아직 남성보다 낮은 농업환경을 강조함
- 향후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연령과 영농규모와 상관없이 ‘남성과 같아야 한다’고 대다수가 응답하였으며, 영농규모가 클수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 소규모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남성보다 낮아야 한다’는 비율이 10%대로 나타남

〈표 2-22〉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연령					영농규모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소	소중	중	중대	대
현재	예전보다 높지만 아직 낮다	61.1	64.5	63.4	63.5	60.0	61.1	61.4	63.4	65.6	83.6
	여전히 낮다	20.1	16.6	15.8	17.4	22.3	18.3	21.3	17.9	19.4	2.9
	같다	5.5	6.8	7.5	6.0	6.0	7.2	6.6	4.6	5.5	0.3
	높을 때가 있다	1.3	5.0	1.6	3.1	0.7	1.9	2.2	1.4	3.1	1.8
향후	낮아야 한다	4.9	3.1	6.3	9.7	12.2	11.9	9.9	4.0	0.0	2.9
	같아야 한다	75.9	77.2	74.4	70.7	67.9	66.1	72.6	76.7	87.2	82.8
	높아야 한다	4.3	5.3	3.5	4.9	2.3	3.6	3.2	3.5	6.6	2.9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의 최근 3년간 교육과정 참여 및 희망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여성농업인의 44.3%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 중 ‘취미·여가·교양’이 3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작물재배 및 농업생산기술(14.0%)’, ‘유통·판매·마케팅교육(10.0%)’, ‘가공기술(9.4%)’ 등 순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문화여성은 ‘취미·여가·교양(39.4%)’, ‘컴퓨터교육(30.1%)’, ‘자동차운전(15.0%)’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귀농여성농업인은 ‘취미·여가·교양(29.8%)’, ‘농업유통·판매·마케팅교육(15.6%)’,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14.1%)’, ‘농산물가공기술(10.3%)’, ‘컴퓨터교육(10.3%)’ 등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 모두 ‘취미·여가·교양(31.2%, 29.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농업활동과 관련한 ‘작물재배 및 생산기술’, ‘농업유통·판매·마케팅교육’, ‘가공기술’, ‘컴퓨터교육’, ‘소형농기계 작동법’ 등 교육을 최근 3년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취미·여가·교양(19.8%)’과 함께 ‘유통·판매·마케팅(11.3%)’, ‘생산기술(10.8%)’, ‘가공기술(10.8%)’ 등으로 나타나, 농업활동 관련 교육욕구를 보임
- 농촌여성은 부업·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였으며, 30대 이하와 50대 여성농업인은 블로그 운영을 위한 컴퓨터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임
- 농촌관광사업을 위한 교육에 대해 50대 여성농업인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교육으로 응답함

〈표 2-23〉 여성농업인의 교육 경험 및 희망 교육내용

(단위: %)

구분		유형				연령				
		일반농	고령농	다문화	귀농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교육경험	경험 있음	43.5	36.8	90.9	45.5	56.1	53.6	51.3	45.7	35.5
	취미·여가·교양	30.1	30.1	39.4	29.8	25.8	31.2	29.3	30.6	31.0
	컴퓨터	6.1	1.9	30.1	10.3	15.7	15.9	10.8	6.3	1.0
	자동차	3.4	0.8	15.0	9.5	9.7	8.0	8.0	2.2	0.5
	농업생산기술	14.1	8.8	3.9	14.1	11.5	18.8	20.9	16.8	6.6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10.0	5.2	5.5	15.6	6.3	18.5	17.0	10.7	3.9
	농산물 가공	9.4	4.4	4.6	10.3	9.2	15.4	15.0	1.0	3.2
	농촌관광 사업운영	2.5	1.4	0.7	6.6	0.9	5.7	4.2	2.5	1.1
	전문농업 경영자	2.1	0.8	0.0	6.6	0.0	4.0	3.7	2.7	0.6
	재무관리	0.9	0.3	0.0	0.8	0.0	3.1	1.5	0.6	0.4
	소형농기계	5.9	2.6	3.3	8.3	3.5	9.8	9.4	7.2	2.0
	중대형 농기계	3.1	1.9	4.6	3.8	3.9	5.9	3.6	3.8	1.6
희망교육	취미·여가·교양	20.0	24.7	12.1	16.9	15.2	15.4	14.0	18.8	27.1
	컴퓨터	5.5	3.8	9.3	6.5	8.3	5.8	7.9	5.6	3.3
	농업생산기술	11.0	10.9	3.6	11.5	8.0	10.8	10.5	10.7	11.7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11.5	9.4	4.8	11.0	9.6	13.1	14.1	11.3	9.0
	농산물 가공	10.9	9.9	4.6	9.4	7.5	9.8	12.8	11.6	9.0
	부업/자격증	8.7	8.3	10.4	7.5	9.9	9.6	8.8	9.1	7.8
	소형농기계	5.8	6.4	1.0	6.8	3.0	6.5	5.6	5.5	6.3
	중대형 농기계	4.4	4.5	2.1	3.7	3.8	4.6	4.3	4.6	4.0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및 자격 유무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과 역량으로 운전면허와 인터넷 사용능력을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자격증 및 역량을 소유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50대 이하 여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은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 30대 이하 여성농업인들은 대다수(83.3%)가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절반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81.2%가 운전면허와 인터넷사용 능력 42.7%와 함께 소형농기계운전능력(14.2%)이 있다고 응답함
- 50대 여성은 타 연령대에 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10.6%)
- 다문화여성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특정 분야 역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사용능력이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요리 자격증(22.6%), 운전면허(17.7%) 등 순으로 나타남
- 귀농여성농업인은 29.3%가 인터넷사용능력과 22.6% 요리자격증을 자신의 중요 자격증 및 역량으로 언급함

〈표 2-24〉 여성농업인의 보유 자격증 및 중요 자격증·역량

(단위: %)

구분	유형			연령				
	일반농	다문화	귀농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없음	54.4	40.4	26.8	13.7	11.4	22.4	54.0	85.1
운전면허	38.8	17.7	67.7	83.8	81.2	70.3	38.1	9.0
인터넷	14.3	28.3	29.3	44.0	42.7	24.4	12.0	2.6
요양보호사	4.7	3.1	9.0	4.3	4.0	10.6	4.2	1.8
요리자격증	3.6	22.6	7.5	7.9	8.1	4.7	4.2	1.1
소형 농기계운전	9.7	6.1	9.8	7.2	14.2	16.4	10.7	4.3
중대형 농기계운전	1.5	0.5	2.4	2.5	2.8	2.1	1.5	0.7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시간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외 경제적 부담, 시설부족, 정보부족, 교통 불편 등으로 나타남
- 문화활동 어려움 요인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며, 3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시간부족(38.0%)과 함께 경제적 부담(25.4%), 정보 부족(13.0%) 등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였으며, 40대는 시설부족(13.3%), 교통 불편(10.1%)을 시간부족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로 강조함
- 시간부족 이외에 50대는 경제적 부담(13.0%)을, 60대는 경제적 부담(16.6%), 취미·의욕이 없음(13.3%), 시설 부족(10.6%), 70대 이상은 교통 불편(18.7%), 취미·의욕 없음(14.6%), 경제적 부담(14.1%), 건강·체력 부족(11.7%)으로 어려움의 원인으로 언급함

〈표 2-25〉 여성농업인 문화활동의 어려움

(단위: %)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시간부족	38.0	53.3	53.2	38.9	24.0
교통 불편	7.8	10.1	7.9	9.1	18.7
경제적 부담	25.4	6.3	13.0	16.6	14.1
시설 부족	8.4	13.3	8.1	10.6	7.7
정보 부족	13.0	6.7	8.9	9.0	9.1
건강·체력부족	0.2	1.7	0.6	2.6	11.7
의욕 없음	6.4	8.3	8.3	13.3	14.6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농촌사회 보육여건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여성농업인이 이용하는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로 어린이집(55.5%)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 취학자녀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54.4%)을 이용하였으며, 학원 또한 주요 돌봄 기관으로 나타남

〈표 2-26〉 여성농업인의 보육시설 이용 및 방과 후 돌봄

(단위: 명, %)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이용			취학자녀 방과 후 돌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어린이집	19	55.5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30	54.4
집에서 돌본다	9	27.4	학원	15	28.2
놀이방	3	9.9	집, 이웃 또는 친구집	5	9.0
유치원	2	4.4	방과 후 보육시설	5	8.3
유아원	1	2.7	계	55	100.0
계	34	100.0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은 농촌보육시설이 갖춰야 할 필요조건으로 근접성(32.8%)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 비용, 교육내용 등 순으로 나타남

〈표 2-27〉 농촌보육시설의 필요조건

(단위: %)

가까운 거리	좋은 보육 시설	저렴한 비용	좋은 교육 내용	긴 보육시간	종일반, 야간반, 휴일반 등 존재
32.8	25.2	21.1	9.5	5.8	5.7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에서 적은 소득(27.3%)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노동(26.4%), 농사·가사 병행(12.6%), 수확기 이외 현금 확보 어려움(12.3%), 농업기술(12.2%) 등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하는 소득의 어려움으로 응답한 반면 70대 이상은 노동으로 응답함
- 40대 이하 여성은 타 연령대에 비해 가사·농사 병행 어려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40대와 50대는 수확기 이외 현금 확보 어려움, 40대에서 60대는 농업기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농업인의 영농규모에 따르면, 소득과 노동이 농업활동의 어려움으로 언급하였으

며, 대규모를 제외한 여성농업인들은 농사·가사 병행 어려움 응답이 대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농업기술로 응답한 여성농업인 비율은 중대규모와 대규모 여성농업인이 타 영농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규모의 경우 새로운 일에 대한 자금 부족을 농업활동의 어려움으로 응답함

〈표 2-28〉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에서 어려움

(단위: %)

구분	연령					영농규모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	소중	중	중대	대
소득	29.1	23.1	23.8	26.9	30.5	29.5	27.4	22.4	22.6	27.8
노동 강도	26.9	21.5	22.6	24.1	31.7	27.6	27.0	24.3	21.1	22.9
농사/가사병행	13.5	15.0	12.8	12.6	12.0	12.5	12.7	13.4	13.3	8.2
수확기 이외 현금 확보	8.9	15.3	15.5	12.6	9.8	10.4	13.7	15.7	13.4	10.5
농업기술	10.4	12.9	13.0	14.3	10.1	12.0	10.3	13.3	17.6	18.9
새로운 일에 대한 자금확보	4.1	6.4	6.2	3.9	1.5	2.9	3.4	4.3	7.6	11.0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경험하는 고충으로 ‘농사일 노동 강도(32.8%)’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농사·가사 병행 어려움(24.5%)’, ‘농기계·시설 사용 어려움(16.1%)’, ‘남녀차별로 활동 제약(10.1%)’ 등 순으로 나타남
- 일반농과 귀농여성농업인의 경우, 10% 이상이 ‘남녀차별로 활동 제약’을 하나의 고충으로 언급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농사일에 체력 부족’, ‘농사·가사 병행 어려움’, ‘농기계·시설 사용 어려움’ 이외에 30대와 60대 여성농업인들은 ‘남녀차별로 활동 제약’을 타 연령대에 비해 농업·농촌에서의 고충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여성농업인은 ‘농사에 체력 부족’, ‘농사·가사 병행 어려움’, ‘농기계·시설 사용 어려움’ 등을 주요 고충으로 언급함

〈표 2-29〉 농업·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고충

(단위: %)

구분	연령					유형			영농규모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일반	고령	귀농	소	소중	중	중대	대
농사일 노동 강도	30.4	30.8	32.2	31.3	34.9	32.7	33.8	34.3	32.5	34.5	32.7	28.3	29.5
농가/가사 병행	24.9	25.2	25.8	25.3	23.0	24.6	23.6	23.3	23.7	24.6	28.3	21.1	21.2
농기계/시설 사용	15.6	14.8	15.8	14.5	18.0	16.2	17.1	13.6	16.6	16.5	13.8	15.8	19.8
남녀차별	10.4	8.5	9.4	12.0	9.3	10.1	9.6	11.3	9.3	10.4	10.9	12.4	13.9
시설사용	7.1	7.7	6.8	7.0	5.2	6.4	5.9	5.1	6.8	5.0	6.0	9.5	7.7
농산물판매	1.3	2.4	3.0	3.2	3.6	3.2	3.8	2.9	3.9	2.1	3.6	1.9	1.9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시급한 정책 이슈는 ‘노동부담 경감(24.2%)’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시설/제도 확대(22.5%)’,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17.6%)’ 등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시급한 정책 이슈 차이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여성은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32.1%)’, ‘노동부담 경감(19.2%)’, ‘복지시설/제도 확대(18.0%)’ 등 순으로 응답함
- 40대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22.6%)’, ‘노동부담 경감(20.5%)’, ‘복지시설/제도 확대(20.0%)’ 등 순으로, 50대 여성은 ‘노동부담 경감(26.3%)’, ‘복지시설/제도 확대(23.8%)’,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17.1%)’ 등 순으로 나타남
- 60대는 ‘노동부담 경감(26.4%)’, ‘복지시설/제도 확대(19.4%)’,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17.1%)’ 등을, 70대 이상은 ‘복지시설/제도 확대(25.2%)’, ‘노동부담 경감(22.2%)’,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18.9%)’, ‘보육·교육시설 확충(17.1%)’ 등 순으로 응답함
- 영농규모에 따르면, 중소규모를 제외한 영농규모 여성농업인은 ‘노동부담 경감’을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언급하였으며, 중소규모는 ‘복지시설/제도 확대’로 응답함
-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노동부담 경감’, ‘복지시설/제도 확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보육·교육시설 확충’은 주 정책 이슈로 나타남

- 대규모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기술·자금 지원’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언급함

〈표 2-30〉 여성농업인의 시급한 정책 이슈

(단위: %)

구분	연령					영농규모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	소중	중	중대	대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19.2	20.5	26.3	26.4	22.2	23.2	22.1	28.6	30.8	24.2
복지시설·제도 확대	18.0	20.0	23.8	19.4	25.2	22.5	25.0	19.5	21.9	17.6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16.5	22.6	17.1	15.5	18.9	19.4	15.1	17.1	15.6	19.4
보육·교육 시설 확충	32.1	17.3	14.2	17.0	17.1	17.0	16.2	16.2	19.9	18.0
기술·자금 지원	6.3	10.6	10.1	12.8	10.6	11.4	11.5	10.8	6.0	13.0
전문경영 교육 강화	6.3	5.4	6.0	4.9	3.8	3.9	7.2	4.9	1.8	2.9
여성친화 농기계 제도	1.5	2.1	1.2	2.3	1.5	2.0	1.7	1.3	1.6	0.0
전담부서 신설	0.0	0.7	1.3	0.9	0.8	0.7	0.7	0.9	2.4	2.8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의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를 살펴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 밥상(39.4%)’,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 지원(33.4%)’, ‘여성농업인대회(33.1%)’, ‘일손돕기 지원사업(28.5%)’, ‘여성농업인센터(26.2%)’, ‘영농후계자여성우대제도(26.1%)’, ‘행복바우처(23.5)’, ‘고령농가도우미지원(23.2%)’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인지하고 있는 정책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18.0%로, 5명 중 1명가량은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농의 경우,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지원(24.3%)’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농업인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2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문화여성은 절반 이상이 ‘국제결혼여성이민자지원사업(53.0%)’을 인지하고 있으며, ‘행복바우처(23.9%)’, ‘농촌소규모보육시설지원제도(21.0)’ 등을 응답하였으나,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성의 비율은 22.0%로 나타남
- 귀농여성농업인의 경우,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 지원(37.7%)’과 ‘농번기 마을 공동밥상(33.9%)’이 인지도가 높은 정책이었으며,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20%이상의 귀농여성농업인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국제결혼여성이민자지원사업(46.6%)’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농번기 마을 공동밥상(33.4%)’,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 지원(32.9%)’, ‘여성농업인대회(30.2%)’, ‘출산여성농가도우미제도(29.3%)’, ‘행복바우처(29.1%)’, ‘여성농업인센터(28.7%)’, ‘영농후계자여성우대제도(26.4%)’, ‘농촌소규모보육시설 지원(26.2%)’ 등 순으로 나타남
- 40대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회(40.6%)’,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지원(38.6%)’,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7.9%)’,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37.4%)’, ‘행복바우처(36.3%)’, ‘국제결혼여성이민자지원사업(34.8%)’ 등 순으로 응답함
- 50대의 경우, ‘농번기 마을공동밥상(43.7%)’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농업인대회(40.0%)’,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지원(39.9%)’,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37.4%)’ 등 순으로 나타남
- 60대 여성농업인의 경우, ‘여성농업인대회(38.7%)’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7.7%)’,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35.5%)’,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지원(32.7%)’, ‘영농후계자여성우대제도(31.2%)’ 등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은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9.1%)’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인지하고 있는 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25.3%로 4명 중 1명은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영농규모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 여성농업인은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8.5%)’,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지원(34.1%)’,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31.9%)’, ‘여성농업인대회(30.1%)’ 등 순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19.8%로 나타남

- 중소규모는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7.9%)',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지원(34.1%)', '여성농업인대회(34.0%)' 등, 중규모는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9.2%)', '여성농업인대회(35.6%)',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35.2%)', '국제결혼여성이민자지원사업(31.3%)' 등, 중대규모는 농번기 마을공동밥상(50.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42.9%)', '여성농업인대회(42.1%)',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지원(33.3%)', '행복바우처(33.3%)' 등 순으로 나타남
- 대규모 농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1〉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지도

(단위: %)

구분	연령					유형				영농규모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일반	고령	다문화	귀농	소	소중	중	중대	대
농번기마을 공동밥상	33.4	37.9	43.7	37.7	39.1	39.8	39.2	17.4	33.9	38.5	37.9	39.2	50.0	54.5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32.9	38.6	39.9	32.7	29.1	33.6	30.6	17.6	37.7	34.1	34.1	29.8	33.3	45.2
여성농업인 대회	30.2	40.6	40.0	38.7	22.8	33.3	27.2	14.7	34.4	30.1	34.0	35.6	42.1	47.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24.1	37.4	37.4	35.5	26.9	32.6	28.6	16.1	41.0	31.9	28.8	35.2	42.9	49.4
국제결혼여성 이민자지원	46.6	34.8	33.6	28.0	22.3	28.0	23.4	53.0	31.6	27.3	27.6	31.3	28.9	40.8
여성농업인 센터	28.7	32.5	32.5	28.3	22.3	26.2	20.1	16.1	34.7	22.8	29.3	27.6	31.2	41.1
여농후계자 여성우대	26.4	31.9	31.7	31.2	17.0	26.2	19.9	9.2	36.5	24.9	26.7	28.3	28.0	28.4
행복바우처	29.1	36.3	29.2	23.0	17.3	23.4	18.5	23.9	29.3	21.3	22.5	25.9	33.3	37.4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15.5	24.5	22.1	23.0	24.8	23.5	24.3	7.3	20.7	22.7	24.4	23.5	20.2	31.9
출상여성 농가도우미	29.3	23.2	19.4	16.0	11.6	16.2	12.4	10.8	25.3	14.8	15.1	15.9	27.4	37.1
농업경영주 등록	10.8	20.0	18.0	16.1	9.2	14.0	11.0	8.3	23.5	12.9	11.8	14.3	23.8	43.2
농촌소규모 보육시설	26.2	19.0	14.8	12.5	8.4	12.3	8.5	21.0	23.2	9.6	12.7	19.6	15.0	17.0
농기계 임대 및 교육	10.9	20.1	17.3	12.4	7.0	12.0	7.8	8.9	17.2	8.9	13.7	14.1	19.0	28.5
농협복수 조합원	11.2	16.7	14.9	13.3	8.0	12.0	8.5	4.2	17.1	7.1	12.4	19.0	23.8	36.5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11.7	11.5	13.7	10.5	8.9	10.9	8.6	5.4	10.3	9.3	11.0	10.3	13.6	36.5
없음	13.3	10.0	13.5	15.3	25.3	18.0	22.8	22.0	15.6	19.8	16.6	16.6	15.2	11.0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이 이용하는 정책 만족도를 5점¹⁾으로 측정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지원제도(4.20)’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농기계임대·교육(4.19)’,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지원(4.19)’, ‘농번기 마을공동밥상(4.18)’ 등 순으로 나타남
- 고령농의 경우, ‘가족경영협약제도(4.35)’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교육도우미제도(4.37)’,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지원(4.25)’,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지원(4.24)’ 등으로 나타남
- 다문화여성은 ‘농기계 임대·교육(4.76)’,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지원(4.24)’, ‘국제결혼여성이민자지원사업(4.20)’ 등, 귀농여성농업인은 ‘연장형 보육시설 및 아이돌봄방(4.18)’,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지원(4.14)’, ‘농기계 임대 및 교육(4.12)’ 등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연령별 정책 만족도를 보면, 30대 이하는 ‘가족경영협약제도(4.42)’, ‘농기계 임대·교육(4.36)’, ‘농번기 마을공동밥상(4.25)’ 등, 40대는 ‘농기계 임대·교육(4.40)’, ‘농번기 마을공동밥상(4.29)’, ‘국제결혼여성이민자지원사업(4.13)’ 등, 50대는 ‘농기계 임대·교육(4.18)’,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지원제도(4.17)’,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지원(4.15)’ 등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0대의 경우, ‘가족경영협약제도(4.27)’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정책이었으며, ‘소규모창업지원(4.17)’, ‘농기계 임대·교육(4.11)’, ‘농번기 마을공동밥상(4.11)’ 등, 70대 이상의 경우 ‘교육도우미제도(4.61)’,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지원(4.47)’,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지원제도(4.30)’, ‘농번기 마을공동밥상(4.25)’, ‘소규모창업지원(4.25)’ 등 순으로 나타남
- 소규모 농가는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지원(4.34)’,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지원제도(4.24)’, ‘농번기 마을공동밥상(4.21)’ 등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중소규모 농가는 ‘농기계 임대·교육(4.26)’, 중규모 농가는 ‘가족경영협약제도(4.26)’, ‘농기계 임대·교육(4.25)’, ‘소규모창업지원(4.21)’ 등, 중대규모 농가는 ‘농기계 임대·교육(4.44)’, ‘농업경영주 등록(4.35)’ 등, 대규모 농가는 ‘마을기업·농촌체험마을

1) 1 매우 불만족, 2 불만,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지원(4.50)', '농업경영주 등록(4.50)', '농기계 임대·교육(4.34)',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4.24)' 등 순으로 만족을 보임

〈표 2-32〉 여성농업인의 정책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유형				영농규모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일반	고령	다문화	귀농	소	소중	중	중대	대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4.00	3.41	4.17	4.07	4.30	4.20	4.25	-	3.86	4.24	4.12	4.20	4.00	-
농기계 임대 및 교육	4.36	4.40	4.18	4.11	4.00	4.18	3.83	4.76	4.12	4.00	4.26	4.25	4.44	4.34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	4.08	3.99	4.15	4.08	4.47	4.19	4.24	4.24	4.14	4.34	4.03	4.01	4.01	4.50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4.25	4.29	4.14	4.11	4.25	4.18	4.18	4.15	4.07	4.21	4.17	4.18	4.06	4.00
가족경영 협약제도	4.42	4.00	3.96	4.27	4.00	4.18	4.35	4.00	3.00	4.07	4.00	4.26	4.00	-
소규모 창업 지원	3.51	4.00	3.86	4.17	4.25	4.02	4.14	4.00	4.10	3.94	4.02	4.21	4.00	-
일손돕기 지원	3.77	3.93	4.01	4.00	4.08	4.02	4.10	3.86	3.75	4.02	3.9	4.14	3.90	4.24
농협 복수 조합원	4.00	4.00	3.88	4.04	4.00	3.99	4.00	4.00	3.89	4.00	4.12	3.91	3.88	4.00
소규모 보육시설	3.77	3.70	4.13	4.00	4.33	3.98	4.11	3.88	4.07	3.96	4.16	3.91	3.00	-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4.16	4.13	3.96	3.86	3.60	3.88	3.50	4.20	4.18	4.00	3.91	4.10	3.12	-
교육도우미	3.54	4.00	3.08	3.03	4.61	3.91	4.37	3.85	4.00	3.53	4.12	3.99	-	-
농업경영주 등록	3.90	3.97	4.12	3.67	3.92	3.92	3.84	3.72	3.75	3.74	3.78	3.84	4.35	4.50
여성농업인 센터	3.66	3.94	3.86	3.86	4.01	3.89	3.90	3.74	3.93	3.84	3.97	3.81	4.00	3.00
영농후계자 여성우대	3.40	3.72	3.68	3.99	4.26	3.89	3.94	3.60	3.82	3.94	3.78	3.86	4.13	-
여성농업인 대회	3.87	3.65	3.93	3.79	3.99	3.87	4.04	3.31	3.81	3.82	3.72	3.93	3.94	4.00
연장형 보육 아이돌봄방	3.89	3.38	4.00	3.53	4.00	3.82	3.81	4.07	4.18	3.76	4.12	3.62	4.00	-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3

장

여성농업인정책 현황

Jeonbuk Institute

-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3.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4.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정책

제 3 장 여성농업인정책 현황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농어업과 농어촌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및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들을 전문 농어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 제정되어 중앙 및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법제 제정·개정과 기본계획 수립·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목적은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목적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와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역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자문회의 참여,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여성농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도우미 지원, 건강관리 지원,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등 법제를 마련함
- 전라북도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과 함께 농업 경영주체와 지역농업 발전의 인력 육성’을 위하여 2011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가 제정됨
- 전라북도 조례는 지자체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고령화·과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할과 위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법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전라북도 조례는 전북도내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주체 등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제14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반면, 전라북도 조례는 여성농업인의 정책 발굴·추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기회 마련, 건강 및 모성권·보육 관련 지원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고령여성화가 되고 있는 전북 농촌사회에서 고령 여성농업인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

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촌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5개년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음
- 2001년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지난해 2020까지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2021년 제5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음
- 농업에서 남성농업인의 보조자로 역할을 해왔던 여성농업인의 위치와 가치에 주목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1차 기본계획(2001~2005)이 수립되어, 4개 부문 8개 과제가 추진됨
 - 기본전략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첫 번째로, 두 번째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전문인력화를 주요 과제로 하고 있으며,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후계여성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함
 -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는 전문교육훈련,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해외농업 연수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핵심정책과제로 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는 ‘여성농업인의 각종 위원회’, ‘협동조합 참여와 여성단체 위탁사업 확대’, ‘여성농업인단체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전문직업의식 고취’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세 번째 추진전략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1)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3)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정책과제 개발 연구, 2)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음

2) ‘제1차~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정리함

- 각 핵심과제 추진 소관부서는 ‘여성정책담당관실’, ‘농촌인력과’, ‘정보화담당관실’,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정책 자문기관인 여성농업인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여성특별위원회/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함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구체화, 여성농업인 정책의 범위 재정립, 가족과 차별화된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해결과제로 선정하여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됨
- 2006년에서 2010년간 시행되었던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4개 부문 23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4가지 1) 지위 향상, 2) 전문인력화, 3) 복지증진, 4) 정책추진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함
 - ‘지위향상’을 위해 농업경영 파트너, 협업배우자·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여성농업인의 농업정책 수립·추진의 역할 강화, 양성평등 등 지원을 중심으로 함
 -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과 리더십 배양, 창업활동,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 기반 확충 등이 주요 세부과제임
 -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건강관리·의료진료 확대, 영농도우미, 여성농업인 센터 확충, 보육여건 개선, 문화개선 등을 통한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향상을 추구함
 - 여성농업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정책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양성평등 추구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과 제도를 확산을 통하여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육성지원 미흡,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사업의 부족,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실적 평가 미흡 등 제2차 기본계획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됨
-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등 농업 이외 소득 창출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활동분야 확대, 귀농귀촌 및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로의 이주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농촌 복지수요 증가,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됨

- 제3차 기본계획은 ‘창조성,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여성농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개 부문 17개 과제를 추진하였음
- 제3차 기본계획 추진전략은 여성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전문 인력을 위한 농업 경영역량 강화, 지역사회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로 하고 있음

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년~2020년)

- 여성농업인의 농업 주 종사 인구, 6차 산업·지역개발정책 참여, 귀농·귀촌 및 결혼이주여성 등 여성농업인의 다양성 증가되며,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됨
-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 및 사무장 육성, 결혼이주여성의 영농교육과 정착지원과 함께 후계양성 등 ‘지역개발 리더·후계인력 양성’, 보육여건 개선, 취약계층 지원, 직업성 질환 지원 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 양성평등 정책과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반 마련을 통하여 ‘정책추진인프라 강화’에 기여함
- 제3차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져옴
 -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및 6차 산업 관련 전문인력 관리 부족
 - 마을개발계획에 실질적 참여 저조
 -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과제 추진의 어려움
 - 복지 정보전달체계 효율성 부족
 - 여성농업인 직업적 지위·권리 향상 등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이를 반영하여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여성고령화에 따른 고령여성농업인 정책 강화와 농가 양극화 문제에 대응한 지원
 - 양성평등 정책 시행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강화와 성과중심의 과제를 선정
 -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사회의 리더와 전문인력화를 위한 역량강화와 귀농귀촌과 다문화가족에 따른 다양화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5개의 전략과제, 15개 중점추진과제가 추진됨



〈그림 3-1〉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제4차 기본계획의 5개 전략과제는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2) 직업역량 강화, 3) 지역역할 확대, 4) 복지·문화 서비스 증진, 5) 농촌여성 주제다양성으로 함
- 전략과제는 각각 3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은 생활 속 양성평등, 정책 참여,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를 추진과제로 하고 있음
- ‘직업역량 강화’는 역량강화 체계, 경영 및 창업능력, 농작업 여건 개선, ‘지역역할 확대’는 지역개발 참여, 지역역량, 사회기여 증진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문화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복지·문화 서비스를 향상’에 이르고,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인력 양성 지원은 ‘다양한 농촌여성 주제 양성’의 추진과제임

다.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년~2025년)³⁾

- 2021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년~2025년)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쉼터'를 비전으로, 5개 전략과제,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게 됨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지난 5년간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촌 구성원의 다양성과 소득양극화 확대, 비대면 경제 확대, 농식품 안전·먹거리교육 등 소비자의 인식 변화, 양성평등의 중요성, 기후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됨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공동경영주제도 도입, 농촌형 성평등전문강사 육성, 정책위원회 참여율 증가, 자문회의, 국민연금 가입율 확대,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정책의 내실화는 하나의 성과로 평가함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진청, 농정원 등에서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되고, 농업기술센터의 공동가공시설,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이루며, 마을리더 및 사무장 육성 교육의 여성 수료자 비율 증가로 지역역할 확대 기회가 증가함
-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문화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가도우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 모성권 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이 확대됨
- 증가하는 귀농귀촌 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 및 정착을 지원함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에서 지위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률과 가족경영협약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역농협의 여성조합원 및 여성임원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3) 농림축산식품부(2021). 제5차(2021~20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무엇보다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농업·농촌정책이 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양성평등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4차 기본계획		제5차 기본계획
권익 증진 등 실질적 양성평등 추진 토대 마련	▶	체감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및 인력양성
전담부서 설치로 정책추진 인프라 확보	▶	지자체 전담부서 확대 및 여성농업인 단체, 정책패널 등을 활용한 현장과의 소통 강화
지역개발 참여 등 사회 기여 활성화	▶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공동체 역할과 지위강화
보육여건 개선, 여성바우처 등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	생애주기별 복지확대 및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책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미래세대 농업·농촌 유입
다양해진 농촌사회 구성원의 정화지원	▶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확대 및 세대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유도

〈그림 3-2〉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방향

- 제5차 기본계획은 크게 농촌 ‘성평등 정책의 확대’와 ‘농업·농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을 큰 축으로 하고 있음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비전, 전략과제,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비전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			
전략 과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중점 추진 과제	1.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2.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3.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4. 정책추진 체계 강화	1.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성인지적 교육체계 구축 2. 사회적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3. 여성농업인 창업 및 경영 지원 4.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역할 지원	1. 일·가정 양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 2. 노동경감 및 지원 3. 건강 및 안전 제고 4. 문화·여가활동 지원	1.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2. 귀농·귀촌 여성 지원 3.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4. 다양한 계층의 여성농업인의 활동지원

〈그림 3-3〉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첫 번째 전략과제인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은 총 4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임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은 사회경제·정책 활동의 낮은 참여율, 낮은 지위 인식,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환류 및 예산 미흡,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미흡 등에 대응방안을 제시함
- 양성평등 교육 확대, 가족경영협약을 통한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정부위원회 참여 및 생산조직 임원 비율 증대 등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성평등 지표 개발·보급 등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지자체 규정, 제도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추진 체계 강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제안함

- 제5차 기본계획은 이를 위해 ‘농업·농촌관련 성별분리통계’ 생산·관리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수립·추진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농업인의 양성평등 인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양성평등 평가 지표 개발·보급’할 계획임
-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는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교육 접근성의 문제, 열악한 생활인프라, 창업 및 농외활동 정보와 기회 부족, 지역사회 참여 여건 부족 등 현재 여성농업인에게 놓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제임
- 성인지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력은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성인지적 교육체계 구축’이 요구됨
- 농업·농촌사회 분야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넘어 여성 사회적경제 활동가·조직 육성과 사회적 경제 실천 모델을 발굴하는 ‘농촌여성 사회적 경제 실천모델 발굴 및 참여확대’를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로 계획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참여 및 경영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식품가공분야 창업을 위한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과 단계별 창업·경영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함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여성농업인단체의 지역사회와 협력과 연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여성농업인 교육수요 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인지적 교육 운영, 찾아가는 교육, 특화 리더십 교육과정 등 성인지적 개편, 교육기관 간 협의체 운영·협력, 교육추진실적 총괄 관리·환류,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등 교육지원체계와의 협력 강화 사업이 새로이 추진될 계획임
- 사회적 경제 활동가로서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참여 지원과 함께 실천 모델 발굴 또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됨
- 여성농업인의 공동협력 네트워크 형성은 리더 양성 교육 확대, 지역단위 협의기구 형성 및 여성농업인단체의 지역 활동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역량강화의 기회를 마련할 것임
- 생애주기에 맞는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농기계활용교육, 농작업 대행 등을 통해 가사일·농사일 부담 경감, 여성농업인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을 예방·치료를 위한 특수건강검진과 농작업 안전재해보험 가입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이와 함께, 문화·여가활동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복지·문화서비스 및 건강·안전 향상’의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공동경영주 등록 유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등 출산 지원, 농가도우미, 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 및 국민연금 가입확대 홍보를 중심으로 함
- 고충이었던 들녘 휴식과 식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들녘별 휴게 공간 마련과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가 이루어짐
- 농업·농촌사회의 농업 인력으로 젊은 세대, 귀농인, 결혼이민여성 육성, 고령농, 결혼이민여성, 귀농귀촌 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 통합을 위해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이 실현가능한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시행될 예정임
- 농업·농촌분야의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인력 진입 기회 확대, 특화 교육컨설팅, 안전한 정착 여건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 귀농귀촌 여성, 결혼이민여성은 농업분야의 미래세대로 양성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의 귀농귀촌교육, 지역사회 활동 지원, 농외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여성농업인의 다양성에 대응하여 다채로운 여성농업인 간 소통과 화합을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세대 공감 지역사회 활동 발굴·추진하며,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추진될 계획임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경로탐색을 위한 ‘농촌 일·학습 경험 프로그램’, 집단 멘토링 제도, 세대 협력 공모사업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 토종씨앗 보존 활동, 고령여성농업인 구술 채록 및 아카이빙, 은퇴농·고령여성농업인 특화 일자리 사업 등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이 새롭게 추진됨
- 여성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 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 고충처리 지원 등 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3.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⁴⁾

가. 제4차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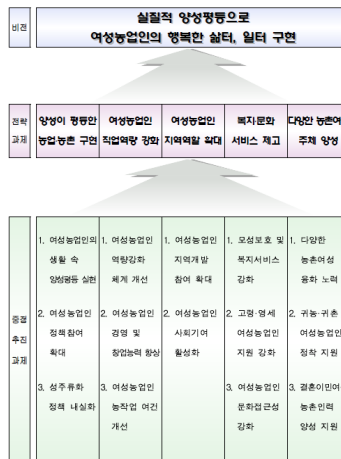
- 2001년 제1차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5차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시행됨
- 제3차 전북 기본계획 추진결과, 여성농업인의 전문성과 리더십 강화,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남성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에 참여 확대를 통해 농촌사회의 주체 양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근거로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
- 이를 반영하여 제4차 전북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농업인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 전문인력 및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농작업 안전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관련 사업 추진
 -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농촌 현장포럼 확대, 재능나눔 관련 사업 참여 제고
 - 농촌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여성 주체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과 지원 필요

4) 「제4차 전북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정리함

제3차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농정관리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 에 여성농업인 참여 비율 저조	▶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강화,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 소규모 창업 및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 지원에 따른 소득 증대 기여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관련 교 육 참여 확대와 여성친화 농기계 개발 필요 - 여성농업인 특성(연령, 영농형태, 관심분야 등)을 반영한 특화 교육 과정 개발 필요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농작업 여건 개선
지역개발사업의 보조적 역할이 아 닌 의사결정과정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에 따 른 일·가정 양립과 사회활동참여 증가 기여 -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영세화에 대 응하는 복지·문화서비스 필요	▶	고령화, 농가 양극화 심화를 반영한 복 지·문화 서비스 제고
귀농귀촌 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 착과 농업인으로서는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다양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여건을 고려 한 주제 양성

〈그림 3-4〉 제4차 전북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방향

○ 전라북도 제4차 기본계획은 제시된 〈그림 3-5〉와 같이 양성평등하고 행복한
삶터, 일터를 비전 주 내용으로 5개 대과제,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그림 3-5〉 제4차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년~2020년)

- 제4차 기본계획은 1)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2) 직업역량 강화, 3) 지위 역할 확대, 4)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5) 농촌여성 주체의 다양성을 5대 전략 과제로 하고 있음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은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정책 참여 확대, 성 주류화 정책 내실화로 설정함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는 역량강화 체계 개선, 경영·창업능력 향상, 농작 업 환경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함
-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는 지역개발 참여 확대와 사회기여 활성화를, ‘복 지·문화 서비스 제고’는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문화접근성, 고령·영세 여성 농업인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을 지원 하며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를 위한 추진과제를 설정함
- 제4차 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6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 정으로 양성평등 정책이 강화됨
- 전북 여성농업인이 농정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2015년 13% 수준을 보이며,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경영주나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42.0%이고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 으로 나타남
- 2015년 5월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여 성농업인육성 정책 자문회의의 역할이 강화되며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실현’ 은 3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함
-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여성농업인 우선 선정을 주요 추진과제로 함
 -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공단과 연계한 홍보 등을 통해 가입자 규모가 2015년 19,037명에서 2020년 20,000명으로 달성 목표로 하고 있음
 - 도정 전반에 대한 양성평등한 정책 강화 및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을 담고 있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적극 추진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극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양성평등 기본법 제15조를 근거로 제·개정 자치법규,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세출 예산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신청 시 선정인의 20%를 여성농업인으로 우선 선발하고, 연간 70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농정관련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자문회의 내실화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 참여 확대’를 제시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변경 등 정책 수립 시 여성위원 비율 확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지원·복지·단체 등을 안전으로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자문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
- 시행계획의 전년도 이행성 확보를 위해 ‘성주류화 정책 강화’는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연간 1회 시행하고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을 함
-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관련 교육과정(6차산업, 유통마케팅 등) 참여율은 2013년에서 2015년간 30% 미만으로 저조하였지만,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에 대한 의사와 참여비율은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각각 50.9%, 38.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재배에 여성농업인과 고령 여성농업인의 참여 비율이 높아 영농활동에 따른 노동 강도가 높은 농작업 여건 개선이 요구됨
- ‘직업역량 강화’는 역량강화 체계, 경영 및 창업능력, 농작업 여건 증진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함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창업활동,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강화 체계 개선을 위해 교육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식품 가공교육, 창업교육과정, 귀농 맞춤형 교육 등 교육 참여율은 2015년 28%에서 2020년 34%로 증가 목표로 함
-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을 위해 4개의 세부과제 ‘창의성 및 리더십 교육 강화’, ‘미래농산업CEO과정 운영’,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상용일자리 연계’가 추진됨
 -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주체하는 창조적 리더 양성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2016

년 40명에서 2020년 60명으로, 한국농수산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농축산물 가공, 약초작물식물 2개의 미래농산업 CEO과정을 연간 50명 수장을 목표로 지원함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기반조성, 컨설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창업지원은 연간 23개소, 향토음식 상품화는 연간 2개소로 목표를 함
- 농촌지역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완주군 새일센터)에서 지원하고, 연간 6명의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원 배치, 새일인턴 13명, 100명의 상용일자리 연계 등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음

○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를 세부사업으로 함

-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 촉진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연간 5개소에 보급 지원, 여성농업인, 고령인, 귀농인 등 중소농의 농기계 관련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를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임대 농기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함
-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주체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교육을 연간 30명을 대상으로 목표하고 있음

○ 지역사회 활동 및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농업인은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여성들의 재능을 지역사회 통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재능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 여성농업인의 지역 역할 확대를 위해 지역개발 참여 확대와 사회기여 활동 지원을 추진과제로 함

- 여성의 농촌 현장포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역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개발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현장포럼 참여(2016년 20% → 2020년 28%)와 퍼실리테이션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함
-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사회에서 재능 나눔을 통해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의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2016년 100명에서 2020년 180명으로 목표로 함

-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 결과에 근거하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노동 부담 경감, 복지·문화서비스 등으로 나타났으며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 고령·영세 여성농업인을 위한 서비스 인력 지원, 문화활동 기회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함
-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세부사업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
 - 출산으로 영농활동을 일시 중단 시 영농 작업과 가사일 일부를 대행하는 출산여성농가도우미를 연간 300명 지원하고,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20일 기간 내 6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 가능함
 - 보육시설이 없거나 열악한 농촌사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동식 놀이교실 서비스, 농촌 국공립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함
 -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20명 이상 마을 대상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 고령자 및 여성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량, 시설 및 노지채소, 화훼, 과수 등 재배 시 컨설팅, 전문가 평가·성과분석, 안전관리 처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연간 5개소를 추진할 목표로 하고 있음
 -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사회 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간 100,000가구에 제공하며, 대상자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함
 - 사고·질병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농가소득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영농도우미를 연간 1,600명 지원을 목표로 함
 - 초고령시대를 대비해 경로당을 노인공동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 공동생활형 홈사업은 매년 145개소를 조성하고, 경로당 시설기능보강,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함
 -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해 만35세 이상 만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문화,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는 생생바우처를 연간 30,000명 지원함

-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에 찾아가는 문화 순회 공연사업은 연간 1회 추진되며, 여성농업의 전반적인 생활고충 상담, 영유아보육, 아동학습 지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한기 교육강좌·문화활동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이 진행됨
- 귀농귀촌, 국제결혼으로 농촌사회에 유입되는 여성의 규모 증가와 이들의 정착이 이슈화되면서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의 지역공동체 안착과 주민과의 융합을 위한 세부사업인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의 집 시설 지원이 추진되고 있음
 -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800명), 귀농인의 집의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연간 7개 귀농귀촌 여성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되었으며 2015년 24%의 참여율을 2020년까지 30%로 증가를 목표로 함
 - 결혼이민자의 각종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준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한국어학당(글로벌마을학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6년 850명에서 2020년 950명으로 목표로 함

나.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 전북 여성농업인정책은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1명 인력이 담당하고 있음
- ‘농업인육성팀’의 업무는 농업인육성 업무전반으로, 크게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농업인 복지로 나눌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정책은 이들 정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음
- 2021년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각 부서의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제외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직접 사업이 제시되지 않아 여성농업인 정책 수혜대상자의 경우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과 이해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농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농정관련 위원회 운영 등
 - 농산유통과 농자재종자팀 : 농기계 관련 사업 등
 - 농촌활력과 생생마을팀 : 사회적농업, 농어촌 고령·과소화마을 대책 추진,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도시민 농업 유치 지원사업, 임시 거주시설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 복지여성보건국
 -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북 성평등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양성평등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지원 사업 등
 - 사회복지 보육정책과 : 농촌특별근무수당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관리 등
 - 건강안전 건강정책팀 : 경로당 노인보건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 대외협력국
 -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 : 글로벌마을학당 운영, 베트남어 통번역 업무지원 등

- 2021년 각 부서와 공무원의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여성농업인이 정책 정보를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6〉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관련 부서 현황

- 여성농업인 직접 사업에 대한 시·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군산시는 농업기술 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에서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을 업무로 제시하고 익산시는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에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익산시농민회(여성농민회) 육성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 직원은 2명으로 여성농업인정책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함
- 김제시는 시청 직속기관인 ‘농촌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행정에서 ‘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을 담당하고, 농촌지원과 인력육성은 ‘한여농 김제시 연합회 육성 및 지원’, ‘(여성)농민회 육성 및 지원’ 하고 있음
- 정읍시 또한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정보는 다소 미흡함
- 남원시는 경제농정국 농정과 농업인복지담당에서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여성농업인정책’, ‘영농도우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원주군의 경우,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에서, 고창군은 농수축산경제국 농생명지원과 농업정책에서 담당하고 있음
- 순창군 여성농업인정책 담당부서는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생활자원계로 업무는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이 해당됨
-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여성농업인정책은 여성농업인 직접 사업에 대한 업무 담당자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 정보 습득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마지막으로, 무주군의 경우 농촌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자원팀은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4.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정책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수립·시행되고 있는 시행계획 (2016년~2020년)을 통해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함

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첫 번째 전략과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3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함
-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2015년 19,037명 여성농업인에서 2020년 20,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목표규모인 19,200명을 넘어 105%를 달성한 20,198명으로 여성농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017년 20,949명으로 확대됨
-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추진에서 45개의 사업을, 2019년 49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45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제·개정 자치법규, 3개년 계획,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실시하여 2016년 137개 제·개정 자치법규, 8개 3개년 계획, 77개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2019년 138개 사업, 2개 사업, 38개 사업이 해당됨
- 2020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개정 자치법규 10개 사업, 3개년 계획 3개 사업, 세출예산 단위사업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여성농업인 우선 선발은 2016년 335명 중 73명인 22%에 해당되며, 2019년 510명 중 17.8% 해당하는 88명이 우선 선정됨

〈표 3-1〉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20,198명	20,949명			
생활 속 양성평등을 위한 조례 제정	1) 45개 ⁵⁾ 2) 204개 ⁶⁾	1) 57개 2) 222개	1) 49개 2) 203개	1) 49개 2) 178개	1) 45개 2) 138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여성농업인 우선선발	73명 (22.0%)	60명 (19.5%)	48명 (22.5%)	88명 (17.8%)	102명 (20%)

-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농정관련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내실화를 주요 목표로 함
- 농업생산자조직 또는 정책결정조직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막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정관련 위원회의 참여율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여성위원 비율을 40%를 유지하고자 함
- 2016년 당연직 2명과 위촉직 23명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위촉직 4명으로 17%에 달하였으나, 2019년 당연직 16명과 위촉직 9명 중 위촉직 4명인 44%로 증가함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변경,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내실화를 목표로 연간 1회 이상 자문회의를 개최함

5) 성평등기본조례 관련 사업 시행계획 수립 추진 수

6)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한 제·개정 자치법규, 3개년 수립계획 사업, 세출예산 단위사업의 총 수

〈표 3-2〉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추진과제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4/23 (17.0%)	2/9 (22.0%)	4/9 (44.4%)	4/9 (44.4%)	4/9 (44.4%)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1회	1회	1회	1회	1회

- 시행계획의 이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와 이를 근거로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함

〈표 3-3〉 성주류화 정책 강화 추진과제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농업인육성계획 이행 평가 및 환류	1회	1회	1회	1회	1회

- 목표 인원 이상 증가된 연금가입 인원 수, 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를 통한 대표성, 법적 기반 마련에 있어 성과가 있음
- 후계농업인경영인 육성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우선 선발 시 여성농업인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여성농업인 성장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여건 마련이 필요함

나.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추진과제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됨
-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유통·판매, 관광 등 6차 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비농업 부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강화 체계, 경영 및 창업능력, 농작업 여건 개선 등 여성친화적인 교육과 농작업 관련 과제가 세부적으로 추진됨
- 농촌여성의 역량강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에서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의 교육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2020년 기준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함양, 생산전문기술 및 가공, 마케팅 등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삼각농정 미래인력양성 20개 과정, 과학 영농 35개 과정, 농식품 가공 22개 과정, 농식품 유통 18개 과정, 농촌체험관광 2개 과정, 축산 및 수산 14개 과정 수강생 중 30%가 여성농업인임

〈표 3-4〉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체계 개선 추진과제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여성농업인의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 수료자/비율	1,478명 (30.6%)	1,127명 (33.9%)	1,477명	1,266명 (32.5%)	1,255명 (30.0%)

- 여성농업인의 문제해결능력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은 2016년 40명을 대상으로 2020년 60명으로 목표로 하였으나, 창조적 농업리더 양성과정은 2018년까지 추진되었음
- 미래농산업CEO과정은 현재 한국농수산대와 연계하여 실습·장비를 활용한 현장 및 이론교육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2016년부터 ‘농축산물가공’, ‘약초 자원식물’, ‘버섯재배’, ‘산림경영’ 4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50명 지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6년 44명을 시작으로 2020년 100명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였음

- 전복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여성농업인 창업을 지원하는 소규모 창업지원
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 활동 역량 강화를 마련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음
-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브랜드 개발, 컨설팅 등 지원이 2016년 여성농
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23개소, 향토음식 상품화 2개소와 2017년 소규모 창업
지원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됨
-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농외소득 창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2018년, 2019년 각각 8개 농가가 지원받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농촌 특화형 직
업훈련 교육, 새일여성인턴 지원, 취업알선을 통해 상용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하고 있음
- 연간 6명의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을 배치하고, 13명의 새일인턴 지원, 상
용일자리에 연계 인원 100명으로 목표로 2016년 취업자 중 상용일자리 취업
자 수는 331명에서 2019년 취·창업인원 571명 중 상용일자리 및 창업 수는
394명이 되었음

〈표 3-5〉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창의적 해결능력 및 리더십 교육 강화	68명	68명	84명		
미래농산업 CEO과정 운영	44명	48명	50명	63명	100명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지원 (소득증가율)	30.8% ⁷⁾ 7.3% ⁸⁾	24.3%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31명 ⁹⁾	385명	375명	394명	390명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지원			8개소	8개소	8개소

- 여성농업인과 고령농 비율이 증가하면서 발작물 재배 참여 비율이 높은 이들을 위한 농작업 여건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발농사의 노동 강도가 높아 이에 적합한 농기계의 다양화와 함께 여성농업인, 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개발이 필요함
-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이 이루어짐
- 여성친화형 농기계보급지원사업은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급 수 확대를 목표로 2016년 7개 임대사업소에서 2019년 11개로 확대함
- 고령농,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중소농 대상 농기계 임대를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제고,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됨
- 2019년부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편의장비 500대를 지원하고 2019년 다용도 농작업대에서 2020년에는 다용도 농작업대뿐만 아니라 고추수확차, 이동식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등 편의장비 지원기종을 다양화함

〈표 3-6〉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	7개소	9개소	9개소	11개소	7개소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1개소	3개소	4개소	6개소	1개소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29명	33명	20명	21명	30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500대 ¹⁰⁾	1000대

-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은 수료자 비율은 전체 비율이 30%를 유지하고 경영·창업을 위한 교육 참여 또한 증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위 향상에 기여함

7)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text{소득증가율} = ((\text{'16소득} - \text{'15소득}) / \text{'15소득}) \times 100$

8) 향토음식 상품화: $\text{소득증가율} = ((\text{'16소득} - \text{'15소득}) / \text{'15소득}) \times 100$

9) 취·창업서비스 인원 중 상용일자리 및 창업 수

10)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5ha)

- 또한, 여성의 노동부담 경감과 영농활동의 효율성 증가 및 농작업 안전을 위해 다양한 농기계·편의장비 개발·임대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업부문의 역량 강화와 안전에 기여함
- 여성농업인의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의 수요자 인원은 안정적이지 못해 이는 여성농업인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필요함
- 농기계 보급 및 임대사업 수와 교육을 받은 여성농업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작동과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과 교육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함

다.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향후 여성농업인의 참여 정도는 지역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농촌 현장포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2019년까지 ‘농촌 현장포럼 지속’, 여성농업인 관심 제고·참여 유도’를 추진해왔음
- 2016년 20%에서 2020년 28%로 비율 증가를 목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함
- 지역사회 적응,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희망 여성농업인에게 재능나눔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교통비 등을 2019년도까지 지원하였음

〈표 3-7〉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촌 현장포럼 지속, 여성농업인 관심 제고·참여 유도	80명	80명	80명	90명	

〈표 3-8〉 여성농업인 사회기여 활성화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능나눔이 요구되는 사업 참여 제고	100명	102명	122명	125명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유지 및 발전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도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귀농귀촌·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통합을 통해 지위 향상의 장을 마련함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역할과 지위 강화를 위한 기회인 농촌 현장 포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참여 등과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재능을 제공하는 기회를 통한 지역역할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선주민과의 교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라.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들이 시급히 해결문제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제도 확대', '보육 및 교육시설 확대', '노동부담 경감' 등을 언급하고,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영농중단 방지를 위해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이 가능해, 198명이었던 2016년 이후 매년 200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목표치는 135명으로 감소함
- 보육의 공공성, 수요자 중심의 보육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 취약지구를 위해 놀잇감 및 동화책 방문대여, 영유아 교육활동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155명이 이동식 놀이교실을 이용하였으며, 2017년, 2018년 200명에서, 2019년 300명을 넘어 2020년 340명으로 목표하였음
-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영유아 인구 감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워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공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 3개소에서 2019년 25개소로 증가함
- 일·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로 종일보육 이후 보육이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최대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2016년 470개소에서 2020년 500개소로 확대 계획이었으나, 2016년 목표치보다 낮은 425개소에서 2019년도 364개소로 감소하였음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감소는 보육대상인 아동 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체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시간연장어린이집이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농번기동안 일·가정 양립에 따른 노동경감을 위해 마을단위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번기 공동급식은 2016년 140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500개 마을에서 운영되었으며, 2020년은 630개 마을로 확대할 예정임

〈표 3-9〉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198명	200명	200명	200명	135명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155명	200명	200명	313명	340명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3개소	3개소	17개소	25개소	14개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425개소	419개소	381개소	364개소	360개소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140개소	160개소	300개소	500개소	630개소

-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작업 재해에 대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교육, 컨설팅, 안전장비 및 보조기구 보급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설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 의료·복지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취약계층 중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접근성이 낮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 방문보건 등록가구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근거로 97,816가구였으며, 100,808가구로 증가함
- 사고·질병, 통원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간 10일 이내 영농도우미 지원을 2016년 1,600명에서 2019년 1,800명이 이용함

〈표 3-10〉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설 시범사업 추진	50% ¹¹⁾	48.1%	48.1%	50.4%	51.0%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97,816 가구	90,492 가구	100,677 가구	100,808 가구	100,000 가구
영농도우미 지원 지속 추진	1,600명	1,600명	1,600명	1,800명	1,600명
농촌 취약계층 공동생활형 홈 조성 (독거노인가족화 사업)	76개소	52개소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사회에 여성농업인에게 교육·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만 20세~75세 여성농업인 대상 건강관리·문화·학습바우처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27,917명이 지원을 받음
- '찾아가는 문화공연',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문화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표 3-11〉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11,347명	14,098명	18,936명	27,917명	31,000명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3회	1회	1회	1회	1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	8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7개소

- 여성농업인정책 중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복지·문화서비스 분야는 생애 주기별, 계층별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됨
- 특히 농촌사회의 고령화·과소화를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가정·농사일 병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고령 여성농업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사업이 됨

11) 농작업 안전관리수준 증가율(%) = ((사업 후 -사업 전) / 사업 전) * 100

- 또한, 여성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 열악한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여성농업인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복지·문화서비스가 요구되며, 보육 및 교육의 양적 증가보다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마. 다양한 농촌여성주체 양성

- 귀농귀촌 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새로운 여성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이 농촌사회에 여성농업인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귀농귀촌 여성의 여성농업인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수도권귀농학교’, ‘귀농인의 집’이 운영되고 있음
- 결혼으로 국내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내 문화뿐만 아니라 농촌사회문화에 적응하는데 경험하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9년 175개 글로벌 마을학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1,611명이 한국어교육에 참여함

〈표 3-12〉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의 지역공동체 내 안정적 정착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수도권귀농학교 운영	1,170명	1,437명	1,010명	595명	600명
귀농인의 집 시설 지원	24호	22호	24호	22호	12호

〈표 3-13〉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귀농·귀촌 여성 역량강화 교육과정 및 인력 양성	116명	130명	128명		

〈표 3-14〉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과제별 세부추진전략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찾아가는 글로벌 마을학당(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900명 ¹²⁾	1,086명	2,235명	1,611명	1,000명

12) 학당참여자 수

- 다양해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유형에 대응한 정책 사업 추진으로 다양성 대응과 세대통합을 위해 농촌사회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
- 여성 청년 귀농귀촌인,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농작업 및 주거 안전, 인권, 생활 고충 등에 대응한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4

장

여성농업인 생활실태 및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Jeonbuk Institute

-
1. 전라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 전북 여성농업인의 인식조사
 3. 소결

제 4 장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및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1. 전라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가. 조사개요

- 전라권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안석 외, 2019)’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이 연구에서는 전라권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전북과 전남을 포함한 전라권 여성농업인 정책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1) 분석개요

-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8월 28일~10월 12일
 - 조사대상 : 농가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여성 중 지난 1년 동안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밭 등 경지를 10ha이상 경영·경작하였거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가 여성구성원
 - 조사지역 : ‘동’지역만 있는 시도를 제외한 전국(서울, 광주, 대전 제외)
 -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18세 이상 전북 및 전남 여성농업인 응답자(N=479)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함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개별면접조사 후 결측치를 제외하여 분석함
 - 표본수 : 2,053명(일반여성농업인 1,534명, 귀농여성농업인 267명, 다문화가정 여성 252명)

- 표본추출 :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근거하여 조사 농가구 층화표집추출을 하고, 세부읍면은 집락표본추출법을 활용함(시군 다단층화표본추출)
- 본 연구 원자료는 전북과 전남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가중치 미부여)

2) 조사내용

-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결혼이민여성을 포함한 전북과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인지·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인 일반적 특성, 경제·사회활동, 교육현황, 복지·문화 서비스, 정책 인지 및 수요로 구성하여 분석함

〈표 4-1〉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진단 항목 및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 연령, 여성농업인 유형, 학력, 가구형태, 혼인상태, 가구원 수, 자녀유무, 영농규모, 영농경력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농업이외 일 유무, 농업 외 활동, 향후 농업 외 활동 의향, 농업생산 외 소득 활동 희망 이유, 농업생산 외 소득 활동 장애 요인, 농업 주력 품목, 논 및 논 외 농지 소유 여부, 농사일 담당비중, 직업적 지위 인식, 농사일 담당 활동, 회원가입 단체 현황, 단체 활동 정도
교육현황	최근 3년 동안 교육 경험, 가장 유익한 교육 및 교육장소, 향후 희망 교육, 교육 참석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보유 자격증 및 역량, 가장 중요한 자격증 및 역량
복지문화 서비스	건강상태 및 최근 3년간 앓을 때 이용한 의료기관, 의료기관 치료 시 고충, 농촌에 필요한 여성을 위한 시설, 보육시설 이용 및 방과 후 돌봄, 국민연금(농어민 연금)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문화행사 이용 장소, 문화시설 이용 장소 및 이용 횟수
정책 인지 및 수요	직업인으로서 농업 고충, 농업, 농촌여성으로서 고충, 현재 지위 및 향후 지위, 활동성 증대 필요 사항, 제도·시설 인지 여부, 제도 및 시설 이용/참여 여부, 제도 및 시설 만족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급 해결 과제

나. 일반적 특성

- 이 연구는 전라권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데이터에서 전북과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여성농업인의 수는 전북이 187명, 전남이 292명인 총 479명으로 구성됨
-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9.2%인 14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2%(116명), 50대 20.9%(100명) 등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53.4%로 절반 이상으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192명으로 전체 중 4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초등학교가 138명(28.8%), 중학교 77명(16.1%) 등 순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절반이상의 56.4%인 270명의 가구형태는 부부가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는 21.3%(102명), 2세대가구 18.6%(89명) 등으로 나타남. 혼인상태는 여성농업인의 대다수가 기혼(77.2%)이었음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영농경력은 30년~40년 미만인 여성농업인이 93명으로 21.0%를 차지하고, 20년~30년 미만은 85명(19.2%), 10년 미만 72명(16.3%), 40년~50년 미만 67명(15.2%) 등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여성농업인은 84% 이상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영농규모는 절반 이상인 60.5%(209명)가 소규모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소규모는 20.7%(99명)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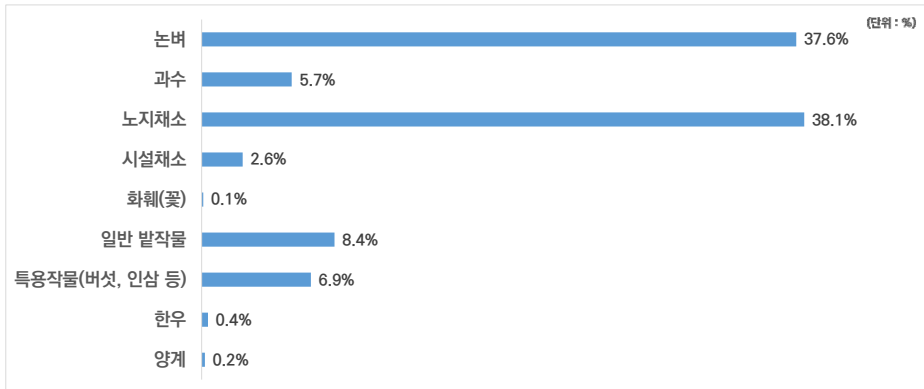
〈표 4-2〉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구분		빈도(N)	비율(%)
거주지역	전북	187	39.0	혼인상태	미혼	1	0.2
	전남	292	61.0		기혼	370	77.2
연령	30대 이하	67	14.0		사별	108	22.5
	40대	56	11.7	영농규모 (영농경력 과의 위치 바뀜)	소규모	290	60.5
	50대	100	20.9		중소규모	99	20.7
	60대	116	24.2		중규모	39	8.1
	70대 이상	140	29.2		중대규모	14	2.9
학력	무학	50	10.4		대규모	12	2.5
	초등학교	138	28.8		규모 모름	25	5.2
	중학교	77	16.1	영농경력	10년 미만	72	16.3
	고등학교	192	40.1		10년~20년 미만	53	12.0
	3년제 이하 대학	16	3.3		20년~30년 미만	85	19.2
	4년제 대학 이상	6	1.3		30년~40년 미만	93	21.0
가구형태	1인가구	102	21.3		40년~50년 미만	67	15.2
	부부가구	270	56.4		50년~60년 미만	55	12.4
	2세대가구	89	18.6		60년 이상	17	3.8
	한부모가구	5	1.0	소계		479	1.0
	3세대가구	10	2.1	소계		479	1.0
	조손가구	2	0.4	소계		479	1.0
	기타	1	0.2	소계		479	1.0
소계		479	1.0	소계		479	1.0

다.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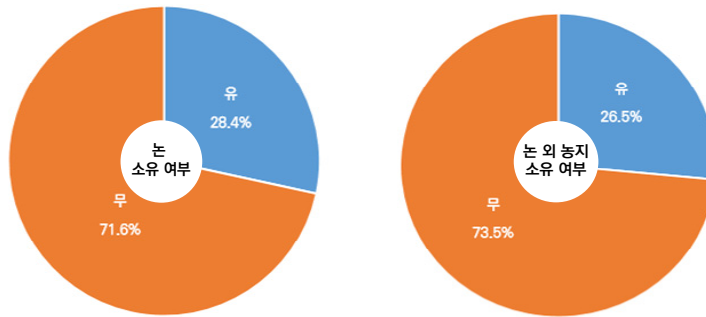
1) 경제활동

- 영농현황 및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 가구가 지난 1년간 판매금액이 많았던 생산 주력 품목은 주로 노지채소가 38.1%, 논벼가 37.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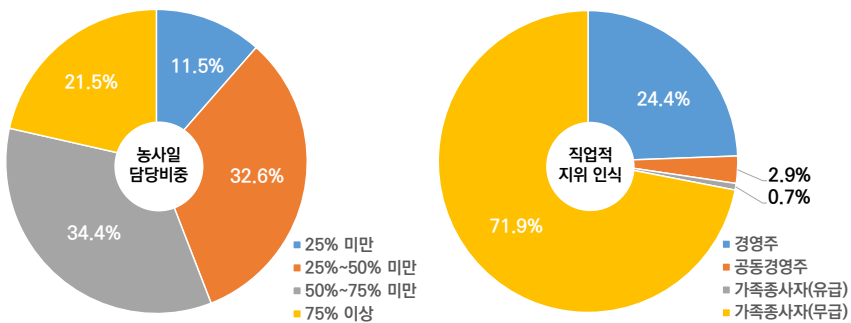
〈그림 4-1〉 농업 주력 품목(중복응답)

- 가구의 토지 중 여성농업인이 소유한 토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논은 28.4%로, 소유한 논의 평균 면적은 458.65평으로 나타났으며, 논 외 농지 소유는 26.5%로 평균 면적은 136.63평으로 나타남
- 논과 농 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여성농업인 중 30% 미만으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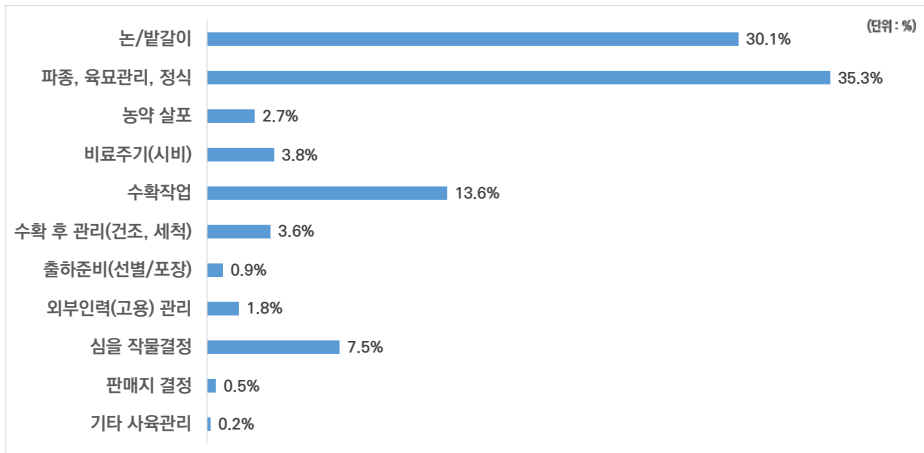
〈그림 4-2〉 여성농업인 농 및 농 외 농지 소유 여부

- 생산·출하, 판매, 재무관리 등을 포함한 농사일 중 여성농업인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농사일 비중은 50%~75% 미만인 34.4%(16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5%~50% 미만 32.6%(156명), 75% 이상 21.5%(103명) 순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인 지위는 대다수가 자신을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였으며(71.3%), 다음으로 24.4%가 경영주로 생각하고 있었고 공동경영주 또는 유급 가족종사자는 각각 2.9%, 0.7%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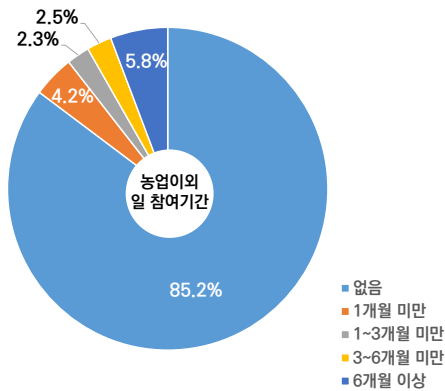
〈그림 4-3〉 농사일 담당비중 및 직업적 지위 인식

- 여성농업인 자신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농업활동은 파종, 육묘관리, 정식으로 가장 많은 156명(35.3%)으로 나타났으며, 논/밭갈이는 133명(30.1%), 수확작업 60명(13.6%)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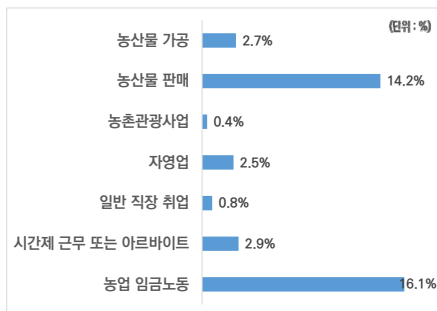
〈그림 4-4〉 농사일 담당활동

-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의 농업 이외 활동에 종사한 여부를 살펴보면, 85.2%가 농업이외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4.8%는 참여한 것으로 응답해 농업생산 이외 활동에 종사한 비율이 참여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농업 이외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종사기간의 경우 6개월 이상은 5.8%, 1개월 미만은 4.2%, 마지막으로 3~6개월 미만 2.5%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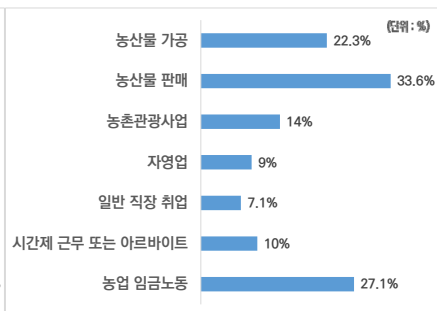


〈그림 4-5〉 농업이외 일 참여 기간

- 현재 여성농업인 참여 농업생산 이외 소득 활동 분야 중 농업 임금노동이 16.1%, 농산물 판매 14.2%,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2.9%, 농산물 가공 2.7%로 농업 이외활동 분야별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여성농업인이 향후 참여하고 싶은 농업 이외 활동 분야를 확인한 결과, 농산물판매가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농업 임금노동은 27.1%, 농산물 가공 22.3%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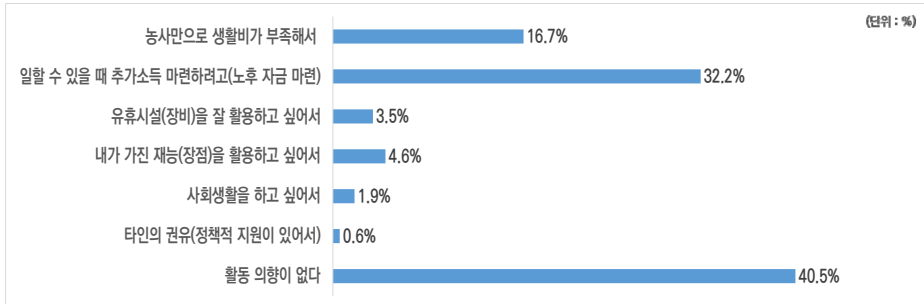


〈그림 4-6〉 활동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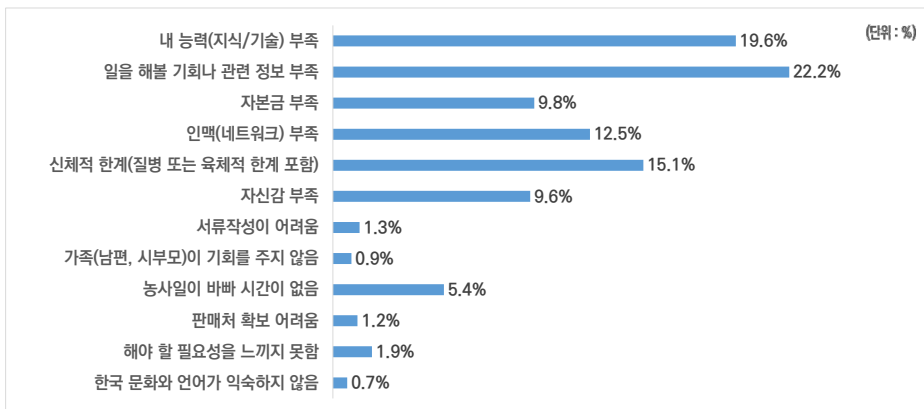
〈그림 4-7〉 향후 활동 의향

- 여성농업인의 농업 이외 소득활동 참여 희망여부와 이유를 살펴본 결과 희망한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59.5%이었으며, 의향이 없는 여성농업인은 40.5%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이 농업 이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 농업생산 이외 소득 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로 32.2%인 154명은 추가소득 마련(노후 자금 마련), 80명(16.7%)은 생활비 부족으로 응답함



〈그림 4-8〉 농업생산 외 소득 활동 희망 이유

-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이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기회나 정보 부족'이 22.2%(202명)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 19.6%(178명), '신체적 한계(질병, 육체적 한계 포함)' 15.1% 순으로 차지함



〈그림 4-9〉 농업생산 외 소득 활동 장애 요인(중복응답)

2) 사회활동

-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중 마을 부녀회는 전체 여성농업인의 64.3%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가입률이 높은 지역활동은 다문화 관련단체 56.8%, 계(친목, 동창) 56.6% 농수축협 조합원 활동 20.3%, 지역 여성단체 12.9% 등, 농가주부모임 9.8% 등 순으로 차지함
- 마을부녀회와 계(친목, 동창)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활동 가입여부는 매우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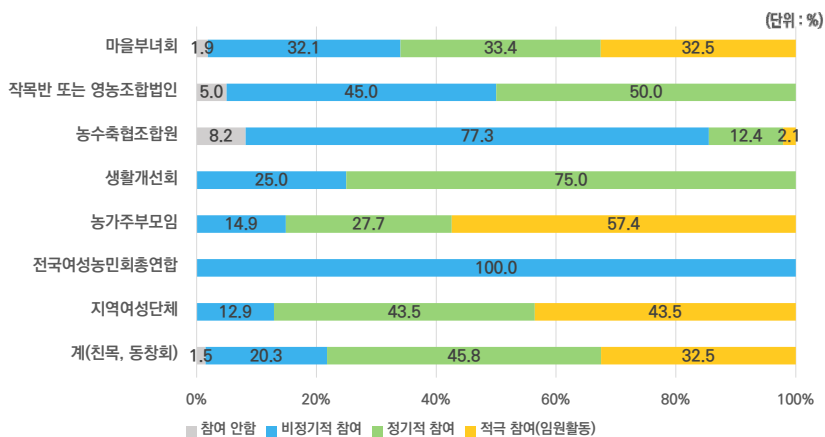
〈표 4-3〉 회원가입 단체 가입 여부

구분	회원가입 단체 가입 여부			
	예		아니오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마을부녀회	308	64.3	171	35.7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20	4.2	459	95.8
농수축협조합원	97	20.3	382	79.7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	-	479	100.0
생활개선회	4	0.8	475	99.2
농가주부모임	47	9.8	432	90.2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	0.2	478	99.8
지역여성단체	62	12.9	417	87.1
계(친목, 동창회)	271	56.6	208	43.4
귀농인 모임	21	33.9	41	66.1
종교 단체	1	2.7	36	97.3
다문화 관련 단체	21	56.8	16	43.2

* 결측치 제외

- 여성농업인이 가입한 지역사회 단체 중 참여 정도를 확인한 결과, 마을부녀회의 경우 정기적인 참여가 33.4%를 차지하였으며, 임원 활동을 포함한 적극적 참여는 32.5%, 비정기적 참여 32.1%로 나타남
-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절반(50.0%)은 정기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5.0%는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함

- 농수축협 조합으로 활동하는 여성농업인 대다수(77.3%)는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4%로 농수축산 조합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개선회 경우, 응답자의 75.0%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0%는 비정기적 참여로 응답함
- 농가주부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여성농업인의 57.4%는 임원활동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정기적 참여 27.7%, 비정기적 참여 14.9%로 나타남
- 지역여성단체의 경우, 87% 여성농업인이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친목, 동창회를 포함한 계는 45.8%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그 외 적극적 참여 32.5%, 비정기적 참여 20.3% 등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활동은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였으며,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수축협 조합원 활동은 임원활동을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0〉 단체 활동 참여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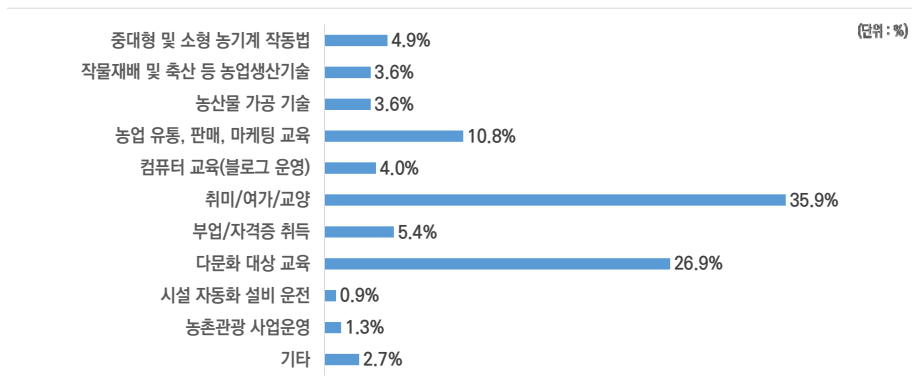
3) 여성농업인의 교육현황

- 최근 3년 동안 교육 종류별 여성농업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취미·여가·교양’의 참여비율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은 5.4%로 응답함
- ‘중대형 농기계 작동법’, ‘소형 농기계 작동법’, ‘자동화 설비 운전’, ‘작물재배 및 농업 기술 등 생산기술’ 등 생산활동 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가공’, ‘유통·판매·마케팅’, ‘재무관리’, ‘농촌관광사업’,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등 참여율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의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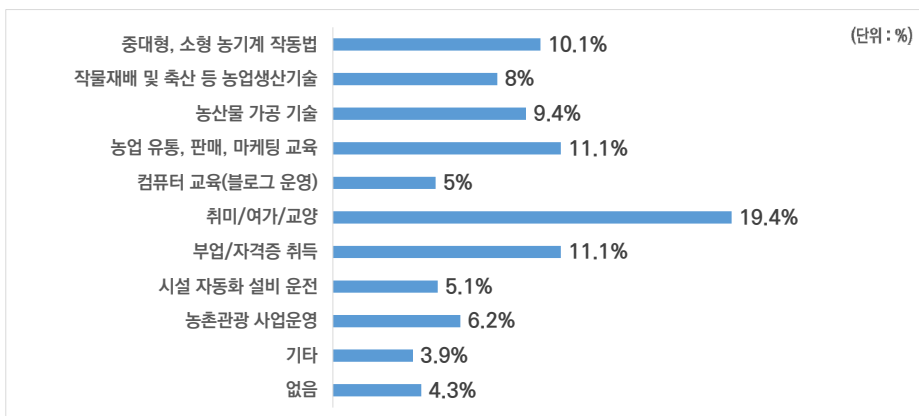
구분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의 교육 경험			
	예		아니오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중대형 농기계작동법	6	1.3	473	98.7
소형 농기계 작동법	7	1.5	472	98.5
시설 자동화 설비 운전	3	0.6	476	99.4
작물재배 및 농업생산기술	9	1.9	470	98.1
가공기술	9	1.9	470	98.1
농업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26	5.4	453	94.6
부기/회계 등 재무관리기법	2	0.4	477	99.6
컴퓨터 교육	9	1.9	470	98.1
농촌관광사업	4	0.8	475	98.7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6	1.3	473	98.7
취미/여가/교양	81	16.9	398	83.1
부업/자격증 취득	14	2.9	465	97.1
외국어 교육	3	0.6	476	99.4
자동차 운전	7	1.5	472	98.5

- 교육을 받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장 유익했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취미·여가·교양’이 35.9%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대상 교육’ 26.9%, ‘유통·판매·마케팅 교육’ 10.8%, ‘부업·자격증 취득’ 5.4%, ‘중대형 및 소형 농기계 작동법’ 4.9% 순으로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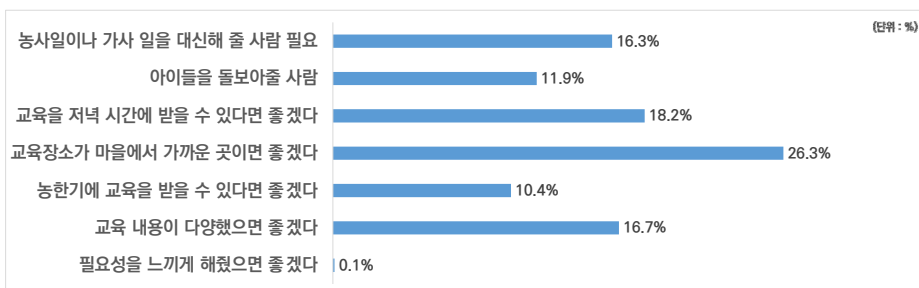
〈그림 4-11〉 가장 유익한 교육(중복응답)

- 향후 여성농업인들이 받고 싶은 교육 종류 중 ‘취미·여가·교양’이 19.4%이었으며, ‘유통·판매·마케팅 교육’ 11.1%, ‘부업·자격증 취득’ 11.1%, ‘중대형, 소형 농기계 작동법’ 10.1%, ‘가공 기술’ 9.4%, ‘작물재배·농업생산기술’ 9.4% 등으로 나타남
- 농업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마케팅’, ‘가공’ 등에 교육 욕구를 보이고 있어 이들 교육에 여성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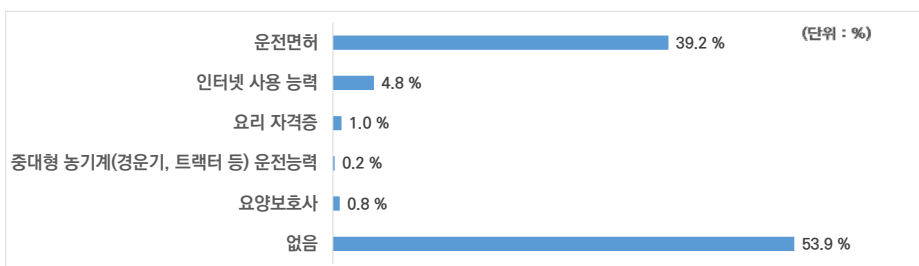
〈그림 4-12〉 향후 희망 교육(중복응답)

- 교육 참석을 위해 여성농업인들은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 ‘교육장소의 접근 용이성’으로 26.3%(252명)가 응답하였으며, ‘교육시간의 저녁으로 변경’ 18.2%(174명), ‘다양한 교육내용’ 16.7%(160명), ‘농사일 또는 가사일 대체인력 필요’ 16.3%(153명) 등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에게 ‘접근성’과 ‘물리적 시간’이 교육 참여 여부에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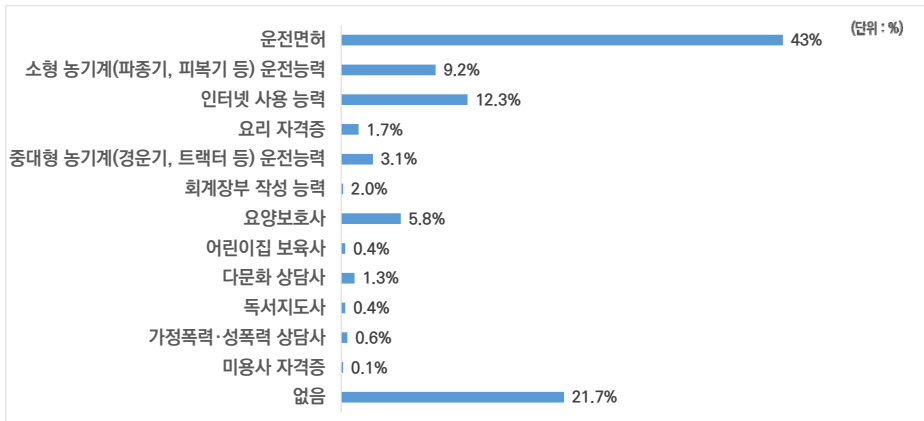
〈그림 4-13〉 교육 참석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중복응답)

- 농업여성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이나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39.2%(188명)가 ‘운전면허’로 응답한 반면, ‘중대형 농기계 운전능력(0.2%)’, ‘요양보호사(0.8%)’, ‘요리자격증(1.0%)’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임
- 자격증 또는 역량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전체 중 절반이상인 53.9%(258명)로 응답함



〈그림 4-14〉 보유 자격증 및 역량

- 여성농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나 역량 종류에 대한 질문에 43.0%(206명)가 ‘운전면허’로 응답하였으며, ‘인터넷 사용 능력(12.3%)’, ‘소형 농기계 운전능력(9.2%)’ 등 순으로 나타남
- 어떠한 자격증 또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21.7%에 해당되는 104명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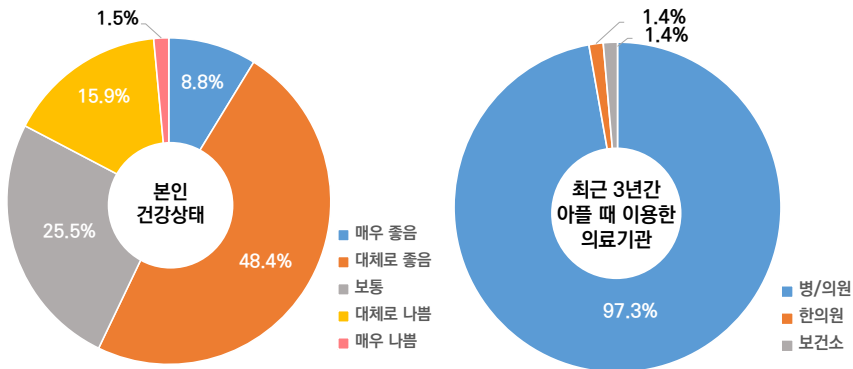


〈그림 4-15〉 가장 중요한 자격증 및 역량(중복응답)

라.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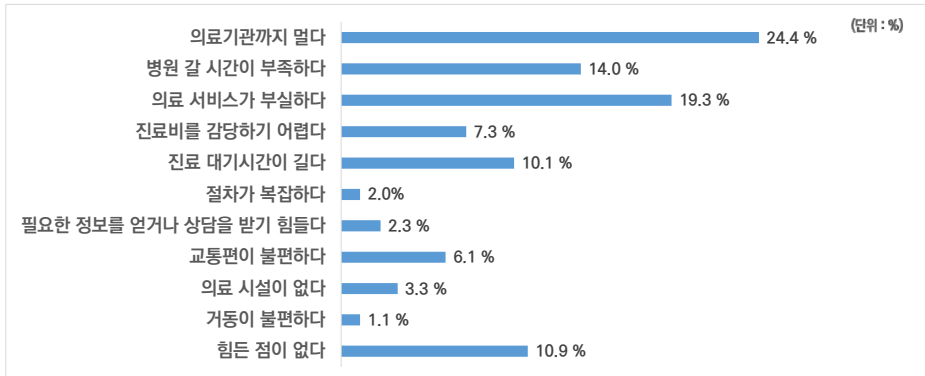
1) 의료서비스

- 여성농업인이 인지하고 있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좋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보통’ 25.5%, ‘대체로 나쁨’ 15.9% 등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이용한 의료기관 및 시설은 응답자의 대다수인 97.3%가 병/의원으로 응답함



〈그림 4-16〉 건강상태 및 최근 3년간 아플 때 이용한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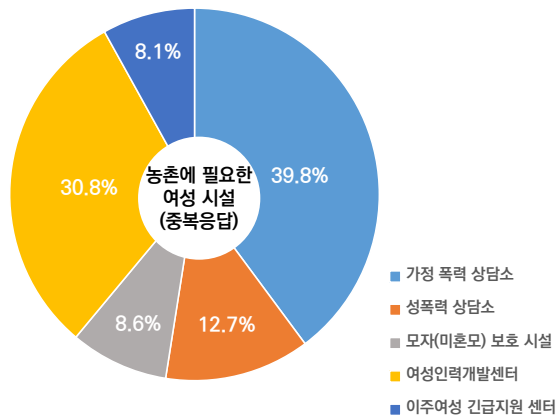
- 여성농업인 자신 또는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24.4%가 ‘의료기관과의 낮은 접근성’을 주요인으로 손꼽았으며, 다음으로 ‘부실한 의료서비스(19.3%)’, ‘시간 부족(14.0%)’, ‘긴 대기시간(10.1%)’ 등 순으로 차지함
- ‘힘든 점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10.9%를 차지함



<그림 4-17> 의료기관 치료 시 고충(중복응답)

2)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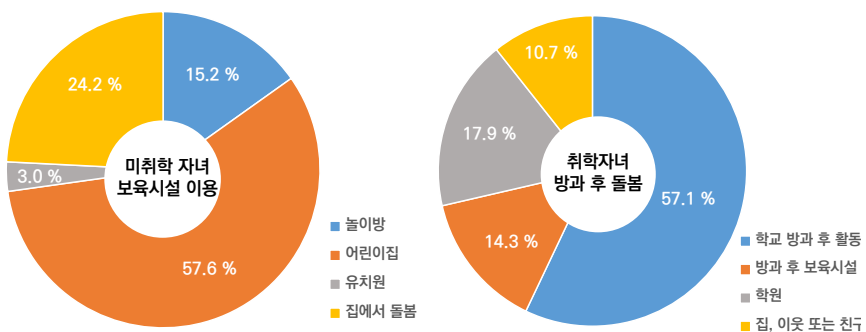
- 도시에 있는 여성을 위한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농촌에도 필요한 시설을 물어본 결과, '가정 폭력 상담소'로 응답한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0.8%로 나타남



<그림 4-18> 농촌에 필요한 여성을 위한 시설(중복응답)

3) 보육·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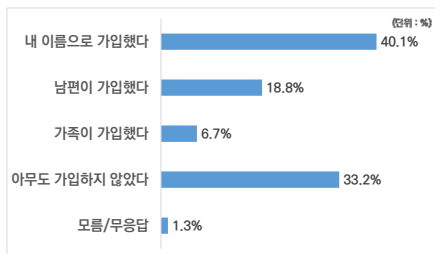
-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농업인의 보육 공간 중 어린이집 이용이 57.6%, 집에서 돌봄 24.2%, 놀이방 15.2% 등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여성농업인의 자녀가 방과 후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여성농업인에게 질문한 결과 학교 방과 후 활동이 57.1%, 학원 17.9%, 방과 후 보육시설 14.3% 등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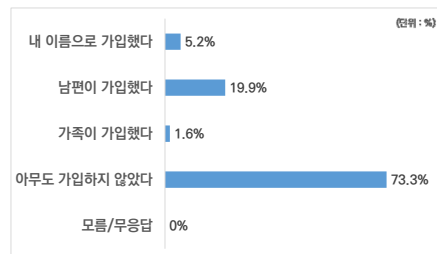
〈그림 4-19〉 보육시설 및 방과 후 돌봄

4) 연금 및 보험 가입

-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농어민연금)’과 ‘농업인 안전보험(구 농협공제)’ 가입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33.2%를 차지함
- ‘국민연금’을 가입한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6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여성농업인은 40.1%, 남편 가입은 18.8%로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73.3%), 가입된 여성의 경우 남편이 가입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음(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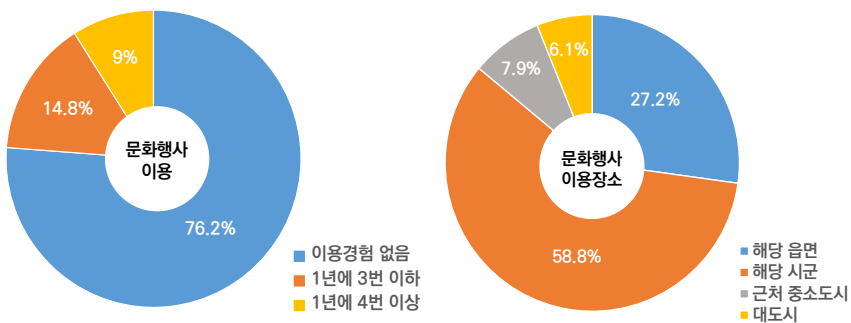
〈그림 4-20〉 국민연금(농어민 연금) 가입현황



〈그림 4-21〉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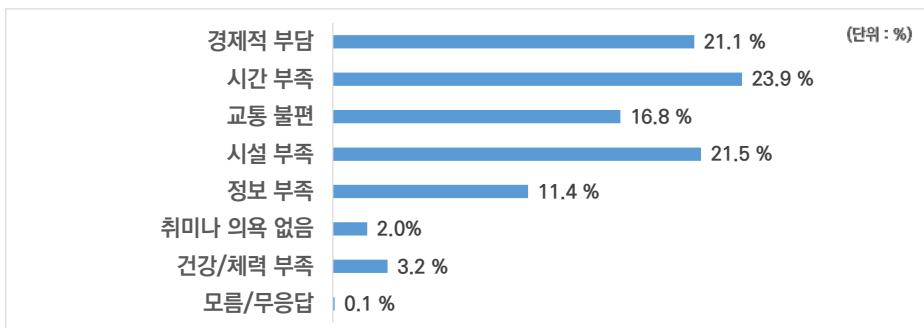
5) 문화활동

- 지난 1년 간 문화행사 직접 관람(참여) 또는 문화시설 이용을 살펴봄
- 문화행사에 직접 관람(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성농업인 76.2%가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한 경우 1년에 3번 이하(14.8%)로 나타남
- 문화시설을 이용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장소와 관련하여 전체 중 58.8%가 해당 시·군 소재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읍·면 시설은 27.2% 차지함



〈그림 4-22〉 문화시설 이용 횟수 및 이용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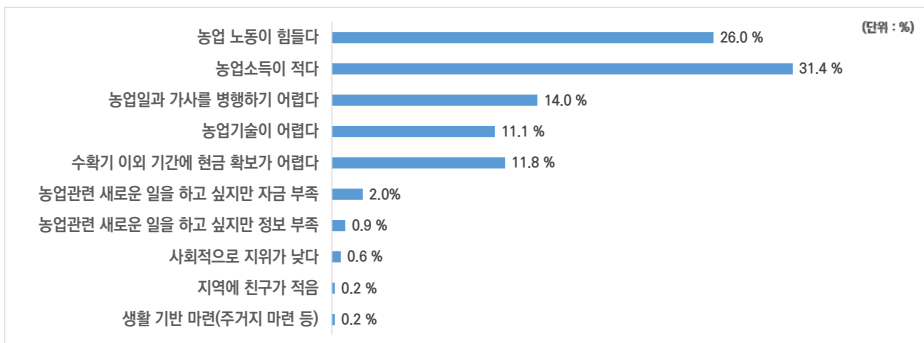
- 문화행사 관람, 문화시설이용 경험이 없는 여성농업인은 어려웠던 이유로 ‘시간이 부족’으로 언급하였으며(23.9%), ‘시설이 부족함(21.5%)’, ‘경제적 부담’(21.1%), ‘교통 불편(16.8%)’, ‘정보 부족(11.4%)’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3〉 문화행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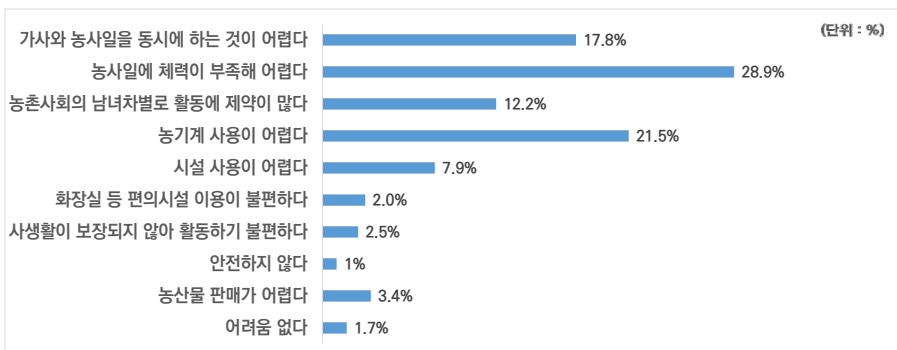
마.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지 및 수요

- 여성농업인에게 농업에 종사하면서 직업인으로서 겪는 고충을 ‘적은 소득’으로 응답한 비율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업 노동이 힘들다(26.0%)’, ‘농업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어렵다(14.0%)’, ‘수확기 이외 기간 현금 확보(11.8%)’, ‘농업기술이 어렵다(11.1%)’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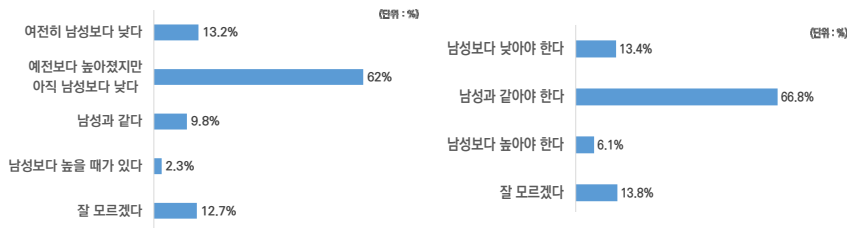
〈그림 4-24〉 직업인으로서 농업 고충(중복응답)

- 농업활동과 농촌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인지하는 어려움은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해 어렵다’가 28.9%로 나타났으며,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가 21.5%, ‘가사·농사일 병행’ 17.8%, ‘농촌사회 남녀차별로 활동 제약’ 12.2%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5〉 농업, 농촌에서의 여성으로서의 고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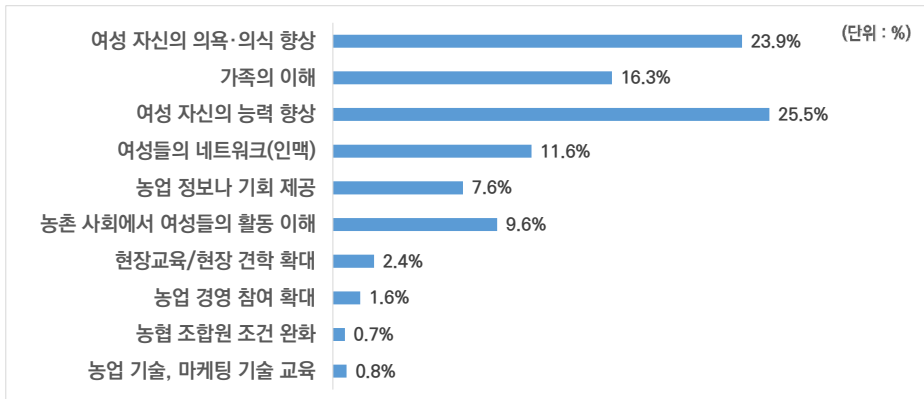
- 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에서 현재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비교할 때,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아직 남성보다 낮다’고 절반 이상(62.0%)이 응답하였으며,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는 13.2%, ‘잘 모르겠다’는 12.7% 등으로 나타남
- ‘남성과 같거나 남성보다 높을 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인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은 75.2%로 농업·농촌사회의 남성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함
- 향후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절반이상(66.8%)이 ‘남성과 같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남성보다 낮아야 한다’로 응답 비율은 13.4%로 나타남



〈그림 4-26〉 여성농업인 현재 지위

〈그림 4-27〉 여성농업인 향후 지위

- 농촌사회에서 여성의 활동력을 넓히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25.5%가 ‘여성 자신의 능력 향상’으로 응답하였으며, 23.9%는 ‘여성 자신의 의욕·의식 향상’으로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가족의 이해’는 16.3%, ‘여성들의 네트워크(인맥)’ 11.6%, ‘농촌 사회에서 여성들의 활동 이해’ 9.6%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8〉 여성 활동성 증대 필요 사항(중복응답)

- 여성농업인의 제도 및 시설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농번기 마을공동밥상’은 절반 이상(54.9%)이 알고 있었으며, ‘여성농업인대회’는 47.0%,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 42.4%, ‘행복바우치’ 31.5%,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31.3% 등 순으로 나타남
- ‘사고발생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제도(7.5%)’, ‘가족경영협약제도(9.2%)’,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6.7%)’,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및 교육(7.7%)’ 등은 인지도가 낮은 정책으로 나타남

〈표 4-5〉 제도 및 시설 인지 여부

구분	제도 및 시설 인지 여부			
	예		아니오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150	31.3	329	68.7
농협복수조합원제도	49	10.2	430	89.8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84	17.5	395	82.5
사고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지원제도	36	7.5	443	92.5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지원제도	87	18.2	392	81.8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제도	32	6.7	447	93.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26	26.3	353	73.7
정부 농업관련위원의 여성할당제	23	4.8	456	95.2
여성농업인대회	225	47.0	254	53.0
가족경영협약제도	44	9.2	435	90.8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지원사업	153	31.9	326	68.1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주 등록	94	19.6	385	80.4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263	54.9	216	45.1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203	42.4	276	57.6
행복바우처	151	31.5	328	68.5
여성농업인센터	127	26.5	352	73.5
교육도우미제도	42	8.8	437	91.2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32	6.7	447	93.3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및 교육	37	7.7	442	92.3
시간연장형 보육시설과 주말 아이돌봄방	21	4.4	458	95.6
농촌지역 문화공연 지원	38	7.9	441	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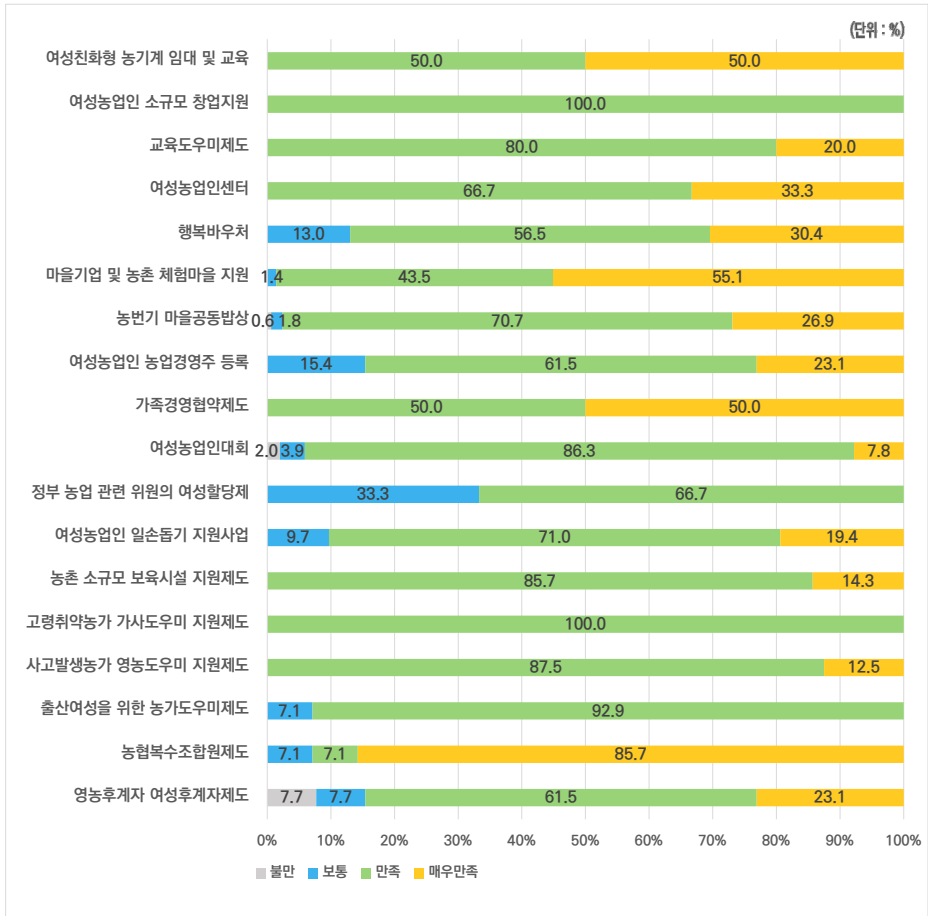
- 여성농업인의 제도 및 시설 참여 또는 이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농번기 마을공동밥상’을 이용한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63.5%로 집계됨
-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34.0%)’, ‘농협복수조합원제도(28.6%)’,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24.6%)’, ‘여성농업인대회(22.7%)’, ‘사고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제도(22.2%)’ 등 순으로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8.7%)’,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제도(8.%)’, ‘가족경영협약제도(9.1%)’, ‘행복바우처(15.2%)’, ‘여성농업인 센터(9.4%)’,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9.4%)’,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및 교육(10.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및 참여 비율을 보임

〈표 4-6〉 제도 및 시설 이용/참여 여부

구분	제도 및 시설 이용/참여 여부			
	예		아니오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13	8.7	137	91.3
농협복수조합원제도	14	28.6	35	71.4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14	16.7	70	83.3
사고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지원제도	8	22.2	28	77.8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지원제도	7	8.0	80	92.0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제도	7	21.9	25	78.1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31	24.6	95	75.4
정부 농업관련위원의 여성할당제	3	13.0	20	87.0
여성농업인대회	51	22.7	174	77.3
가족경영협약제도	4	9.1	40	90.0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지원사업	13	8.5	140	91.5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주 등록	13	13.8	81	86.2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167	63.5	96	36.5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69	34.0	134	66.0
행복바우처	23	15.2	128	84.8
여성농업인센터	12	9.4	115	90.6
교육 도우미제도	5	11.9	37	88.1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3	9.4	29	90.6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및 교육	4	10.8	33	89.2
시간연장형 보육시설과 주말아이돌봄방	21	-	458	100.0
농촌지역 문화공연 지원	38	-	4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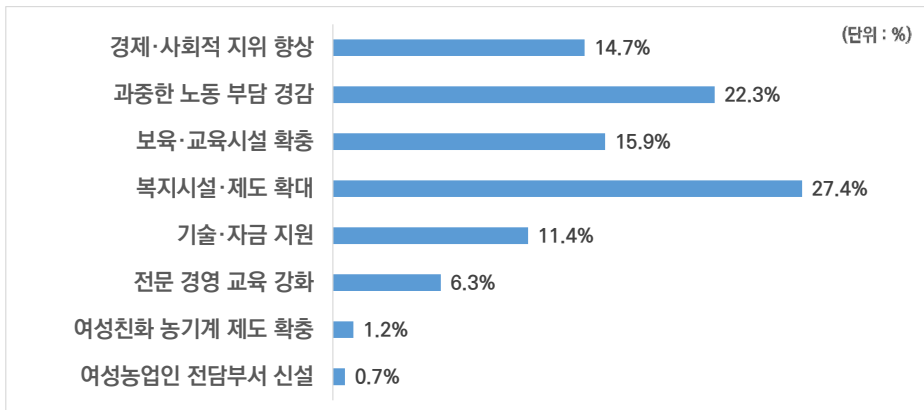
* 결측치 제외하여 작성

- 다음 제도 이용 및 행사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제도 이용과 행사 참여한 여성농업인들 대다수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농번기 마을공동밥상’을 이용한 여성농업인의 만족도는 ‘만족’과 ‘매우만족’을 포함하여 97.6%를 보였으며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은 98.6%, ‘농협 복수조합원제도’는 92.8%,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90.4% 등을 보였음



〈그림 4-29〉 제도 및 시설 만족도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를 27.4%로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노동 부담 경감’ 22.3%, ‘농촌지역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15.9%,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14.7%, ‘농산물 가공·유통·농촌관광 등을 위한 기술과 자금 지원’ 11.4%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0〉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급 해결 과제(중복응답)

2.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농촌사회에서 농업인으로서의 지위, 삶의 질 등을 여성농업인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6명의 여성농업인 면접조사를 수행함
- 앞서 실시한 전라권 여성농업인 원자료 분석결과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의 한계를 고려하여 전북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농업인으로서 지위, 고충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함
- 다양한 연령과 농업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근거로 심층면접조사가 진행됨
- 면접조사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7〉 면접조사 주요 질문사항

영역	주요 질문사항
기본사항	연령, 혼인상태, 영농기간, 영농활동 여부
영농활동 및 지역경제활동	농사일/가사노동, 직업인으로서 지위, 주력 생산품목, 여성농업인 명의 토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농외 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교육·복지	교육경험, 만족 및 희망 교육, 여성농업인의 역량 및 활용, 사회·복지 인프라 등
정책 수요	직업인으로서 어려움,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으로서 만족 또는 고충, 농업·농촌정책 인지도, 이용 및 욕구 등

- 초점집단면접조사는 3월 11일과 15일에 실시하였으며, 첫 번째 조사는 중장년 5명을 대상으로 15일은 청년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면접조사에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가 진행됨

1) 일반적 특성

-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6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4-8>과 같이 연령은 28세에서 63세이었으며, 혼인상태는 기혼이 4명, 미혼이 2명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최소 2년에서 41년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인으로서 본인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여성은 3명이었으며, 공동경영주는 2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명으로 응답하였음
- 전체 농사일 중 자신이 담당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100%로 응답하였으며, 40%는 1명, 50% 1명, 40% 1명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에게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두 명을 제외하고 4명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함
-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두 명의 여성농업인이었으며, 소득이 있는 농외 활동은 농산물 가공, 판매 이외 방과 후 아동복지교사, 농업임금노동, 귀농교육 강사, 체험지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초점집단면접조사는 51세에서 60세 연령 중년 그룹과 30대 청년그룹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짐
- 조사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8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4-8>과 같음
- 중년그룹은 영농기간이 짧게는 21년, 가장 긴 기간은 35년으로 나타났으며, 벼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밭농사를 하고 있었으며 5명 중 경영주는 1명, 공동경영주는 3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명으로 나타남
-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두 명은 50%, 나머지 한명은 90%라고 응답함
- 무급가족종사자를 직업인 지위로 언급한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60%를 담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여성농업인과 달리 자신 소유의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 최근 1년간 농업 이외 활동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가공, 판매, 아르바이트 등으로 답하였음

- 청년그룹은 31~37세이었으며, 5년 이하의 영농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있는 경영주로서, 농산물 판매와 함께 농산물 가공품 판매, 체험학습 강사, 청년여성 관련 강의 등 농업 이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 면접조사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혼인 상태	영농 기간	주력 생산품목	명의 소유	직업인	농사일 담당(%)	농외 활동 여부
1	57	기혼	24	수도작, 고추, 콩	○	경영주	100	○
2	62	기혼	35	수도작	○	공동 경영주	50	×
3	36	미혼	3	비트, 호박	×	경영주	100	○
4	28	미혼	2	아스파 라거스	○	경영주	100	×
5	62	기혼	41	복분자, 서리태, 오디, 고추, 잡곡	×	무급 가족 종사자	40	×
6	63	기혼	30	과수, 베리류	○	공동 경영주	60	×

〈표 4-9〉 초점면접조사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혼인 상태	영농 기간	주력 생산품목	명의 소유	직업인	농사일 담당(%)	농외 활동 여부
1	58	기혼	30	고추, 들깨	○	경영주	100	×
2	60	기혼	35	수도작	○	공동 경영주	50	○
3	56	기혼	21	수도작, 복분자	○	공동 경영주	50	×
4	57	기혼	28	수도작	○	공동 경영주	90	○
5	51	기혼	26	낙농	×	무급 가족 종사자	60	×
6	37	이혼	3	오디	○	경영주	100	○
7	31	미혼	5	땅콩, 땅콩새싹	○	경영주	100	○
8	36	미혼	3	비트, 호박	×	경영주	100	○

2) 조사결과

- 면접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이슈를 간략히 정리하면
〈4-10〉과 같음

〈표 4-10〉 주요 결과

이슈	주요내용
양성평등	- 남성주의적 농업·농촌문화 개선 필요 -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필요 - 효과적 양성평등 교육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농촌형 성평등강사로 활용 - 가족경영협약제도 이해와 장점 - 공동경영주 등록과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 여부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필요
정책추진체계	- 전담부서 설치·전담인력 배치 필요 - 여성농업인정책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부족 - 현장에서 여성의 농업, 정책 정보, 교육 등 제공하는 인력 필요
노동부담	- 소작농, 고령·여성청년농을 위한 농기계 임대 및 대행 인력 필요 - 농기계 사용에 대한 두려움, 불안 - 여성친화형 편의장비 확대 필요 - 농번기 공동급식의 장점과 확대 필요 - 농번기 노인돌봄 - 시간부족
문화·복지	- 시간 및 장소부족 - 인지도가 낮은 여성농업인센터 - 직업성질환에 따른 지원 필요
경제활동	- 판로개척의 어려움 - 유튜브, SNS 등 교육 및 활용의 필요성
공동체	공동체 내 농사일·일상 도움 상호제공 필요

- 여성농업인은 농업인,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겪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농업·농촌사회 불평등’으로 나타남
- 남성 중심적인 농촌문화는 조사대상자의 농업활동, 농업 이외 경제활동, 일상생활 등에서 발견됨
- 조사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대다수는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농업인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공동경영주로 응답한 이들은 지자체의 홍보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공동경영주가 되기 위해 남편 수락을 위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음을 언급함
- 토지 소유와 관련해, 영농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동경영자 응답자 3명을 제외한 6명은 본인의 농지가 없었고, 농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음
- 농업인, 농촌 남성, 공무원 등과 교류과정에서 남성들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여성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함
 - 농업기술센터 등 교육기관의 남성 중심 교육으로 여성맞춤형 교육과정이 부족함
 -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남성 공무원의 여성농업인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농지 임대 시 여성이 임대한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거부하여, 지인인 남성농업인이 보증을 한 후 농지를 임대할 수 있었음
 - 4H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 여성 귀농인은 농업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중요한 네트워크이지만,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여성농업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언급함
- 현재 농림부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의해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에 참여했던 4명의 응답자는 교육과정에서 농촌문화의 남성주의 문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농촌형 성평등 교육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가부장적인 농촌문화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에서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농림부·한국양성평등진흥원 공동주관하는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한 4인은 교육 내용이 도시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농촌문화와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상황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될 뿐 전체 교육과정이 농업·농촌문화를 기반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 농촌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 성평등 전문 강사들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강사들의 교육내용이 가부장적인 농촌 남성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짐
- 지역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있고 농업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불평등 상황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여성농업인을 활용하여 성평등 강사를 양성하고, 마을을 순회하며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안정적인 여성농업인정책 운영·관리와 여성농업인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고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도/시·군별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을 강조함

- (여성)농업인정책 업무 추진은 주 소관부서에서 여성농업인정책을 총괄하지 않고 다양한 부서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정책에 대한 문의와 고충 해소가 가능한 창구가 미흡함을 강조함
- 정책 관련 정보 수집은 개인이 주로 시·군 홈페이지, 관련 기관, 지역사회 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도/시·군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을 언급함
- 농림부 농촌여성정책팀, 타지차체의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사례를 언급하여 전북도의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시급성과 필요성 강조

○ 농사기술, 편의장비 사용 교육, 정책 홍보 등을 현장에서 관리해줄 수 있는 인력 필요성을 강조함

- 시간과 물리적 여건으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여성농업인을 위해 현장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및 사업, 편의장비 소개 및 사용방법 등을 소개하고, 여성농업인으로서의 고충 해소를 위해 행정부서 및 인력과 여성농업인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현장 중심 지원 인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농사일과 가사일로 시간 부족, 이장의 홍보 부족,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정책 홍보가 부족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고령농 대상 정책 및 사업의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현장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사업 지원과 관련해 복잡한 서류와 작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밭농사는 기계화가 되지 않아 노동 부담이 있어 (여성친화형)농기계는 영농 환경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성친화형)농기계 개발도 중요하지만 농기계 중 여성친화적인 농기계 교육과 농작업 편의장비 개발도 필요함
 - 현장 작물재배 환경과 기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한 예로, 고추 수확차는 이랑과 고랑 면적으로 인해 밭을 기계에 맞게 경작해야 하며, 그로 인해 기계 없이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량보다고 언급하며, 모든 밭에 적용할 수 없는 농기계보다 고추세척기와 같은 편의 장비가 더 유용하다고 언급함
 - 여성 교육 수요가 높은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 지원이 필요함
 - 드론은 여성의 섬세한 특성과 부합된다고 인식하며, 드론 교육을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용미숙에 따른 사고율 경감을 위해 농기계 교육이 이론보다는 실습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함
- 고령농·소작농의 경우, 혼자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 가중한 노동에 신체적으로 부담을 가지게 되어 농기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기계 임대 기준 완화로 고령농과 여성소작농이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와 함께, (여성친화)농기계 운전 미숙에 따른 안전과 두려움에 대해 호소하며, 농기계 운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행 인력이 필요함
- 농번기동안 가사일과 농사일 병행으로 발생하는 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중장년 조사대상자는 농번기동안 노부모의 식사를 챙겨드리기 위해 집과 농지를 오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며 일-가사일-돌봄 삼중고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 가사일과 농사일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여가·문화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으며, 농사일과 가사일이 끝난 이후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램이 부재함

- 여가·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청년 조사대상자의 경우 여성농업인센터를 인지하지 못함
 - 14개 시·군에 여성농업인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보육과 여성농업인의 여가·문화활동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가·문화공간으로서 인식이 부족함
 - 지역 내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등은 비농업인 대상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농사일 시간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참여의 한계가 있음
 - 복지관은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으며, 여성농업인의 거주지와 지역복지관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낮은 접근성이 참여의 어려움 요인으로 지적됨
 - 과소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여가·문화프로그램 추진으로 여가·문화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지역 내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들이 여가·문화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여성농업인이 여가·문화활동에 시간 및 공간 제약이 줄어들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공간은 지역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고창의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전북대 고창캠퍼스에 '열린 공간'을 마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함
 - 여성농업인 모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을 사용 시 직원이 당직을 서야 하는 상황에 불편함이 있어 지역 유휴시설 사용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함
 - 교통체계가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노인이 여성농업인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문화·여가활동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접근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찾아가는 교통서비스 등과 같은 지원을 제시함
 - 여성농업인의 여가·문화와 복지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해 역할

강화가 필요함

- 보육, 여가·문화프로그램
-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사업 지원 시, 행정적 지원
-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
- 행정기관과 가교 역할 등

○ 창농업 초기 단계의 여성농업인의 경우,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주요 홍보, 판매는 온라인 사이트,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소자본창업자, 창업을 시작한 귀농귀촌 여성 등 경우, 소자본창업자를 위한 판매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지인의 매장·식당에 납품하거나 판매 등으로 판로 개척을 하고 있음

○ 농산물, 영농활동 홍보를 위해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하며, 홍보는 판매 수익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함

-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인터넷, 휴대폰 교육을 받은 여성농업인은 가구 재배작물 오디를 활용하여 블로그 운영을 통해 판매 한 경험을 언급함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참여로 홍보영상을 찍으며 농촌문화와 함께 지역을 소개하며 자신의 농작물을 홍보를 함
- 전북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활동지원을 통해 도시민과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전북 농업·농촌과 농산물 홍보를 통해 농산물 판매 개척 및 도시민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기관(스타트업로군산) 등 활용
 - 충부 청년농부 안떡국 로컬크리에이터(충북 공식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 등 사례 제시

○ 현재 도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농산물 쇼핑몰 ‘거시기 장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도/시·군 차원의 소작농, 소규모 농산물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처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함

- 고창군 직영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물’ 4월 오픈 예정이며, 이에 대한 도와 군차원의 홍보가 필요함
- 지역 인터넷 판매처들을 연계할 수 있는 도차원의 쇼핑 플랫폼이 필요하며 ‘거시기장터’ 등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논의됨

- 공동체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공유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과거 품앗이와 같이, 개인이 부족한 부분은 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자신의 재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촌사회에서 소작농·고령농·여성농업인의 어려움도 해결가능하고 공동체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전라북도 공유경제 '가치앗이'와 같이 농촌형 생활도움 공유경제의 필요성 강조
 - 국민집사 김집사 앱 등을 예로 제시함

3. 소결

- 전북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 수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전국 여성농업인 중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태분석과 전북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조사가 진행됨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전라권 여성농업인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은 지난 1년간 생산 주력 품목은 노지채소, 논벼로 나타났으며, 여성농업인의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논과 농 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여성의 30% 미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사일 담당비중은 여성농업인의 55% 가량이 50%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가량의 여성은 25% 이상 비중의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함
- 여성농업인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다수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하였으며, 전체 의 1/4가량은 경영주로 나타남
- 농업 이외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의 대다수가 농업 이외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농산물판매, 농업 임금노동, 농산물 가공 등을 언급함
-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참여 어려움을 기회나 정보 부족, 능력 부족 등으로 지적함
-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은 주로 마을부녀회, 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수축산 조합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중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은 교육은 '취미·여가·교양'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희망교육으로 나타남
- '가공', '유통·판매·마케팅', '재무관리', '농촌관광사업' 등 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았으나, '가공', '유통·판매·마케팅' 교육에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장소의 접근성,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인프라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인식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등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에 필요한 시설은 가정 폭력 상담소와 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인권 및 일자리 연계된 복지를 희망함
- 여성농업인은 자녀 양육 및 보육을 위해 가정보다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농업인 안전보험은 배우자가 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대다수가 참여 및 이용 경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및 이용의 어려움은 시간부족, 시설부족, 교통 불편 등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지 및 수요와 관련하여, 직업인으로서 겪는 고충으로 적은 소득, 노동 부담, 농사일·가사 병행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으로서 체력, 농기계 운전 어려움, 가사·농사일 병행 등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 내 여성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 자신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인지도가 높은 제도 및 시설은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여성농업인대회,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 등이었으며, 참여도가 높은 제도 및 시설은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 농협복수조합원제도 등으로 나타남
- 만족도가 높은 제도는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마을기업 및 농촌 체험마을 지원 등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 노동 부담 경감, 농촌지역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등이 요구됨
- 전북 여성농업인 대상 심층면접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하게 논의된 아젠더는 양성평등, 정책추진체계, 노동부담, 문화·복지, 경제활동, 공동체였음
-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가부장적이고 남성주의적 농업·농촌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남성농업인, 농촌 남성주민, 여성농업인 관련 기

관·센터 종사자, 공무원 등을 위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남성농업인과 농촌 남성주민 대상 현장 중심 성평등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이 필요함

- 농업·농촌사회에서 낮은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가족경영협약제도, 공동 경영주 등록 등의 홍보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책 담당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의 어려움 중의 하나로 농사일과 가사일로 인한 노동 부담이 언급되었으며, 농사일과 가사일 병행, 농사일의 노동 강도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분야에서 시간 및 장소 제약을 다양한 여가·문화활동 참여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여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기계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지채소 재배와 소작농으로 여성농업인의 높은 노동 강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성질환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농업인형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조기 예방과 치료를 기대함
- 소작농과 농업경력이 초기인 여성농업인의 주 어려움은 판로개척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년기 여성농업인 모두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필요성을 강조함
- 소작농 및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업활동·농촌사회에서 노동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공동체 내 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자신의 재능을 제공하여 과거 품앗이와 같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5

장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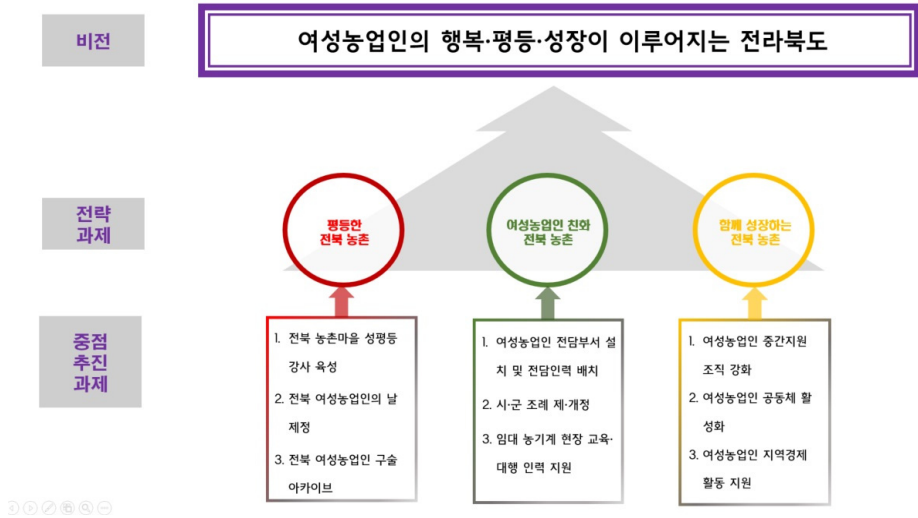
Jeonbuk Institute

-
1. 비전 및 추진체계
 2. 전략과제

제 5 장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1. 비전 및 추진체계

- 전라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 및 전북 여성농업인의 수요조사 결과와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근거로 전라북도 농업·농촌 여건과 여성농업인의 실태 및 정책수요를 고려한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함
- 생활과 농업·농촌에서 양성평등 실현,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의 리더 육성, 고령화와 농가 양극화를 극복, 변화하는 농촌사회 대응을 목표로 한 ‘제4차 전북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진단하고 전북 여성농업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여성농업인의 행복·평등·성장이 이루어지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평등한 전북 농촌’, ‘여성농업인 친화 전북 농촌’, ‘함께 성장하는 전북 농촌’ 3대 전략과제를 수립함
- 첫 번째 과제인 ‘평등한 전북 농촌’은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강사 육성’, ‘전북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전북 여성농업인 구술 아카이브’를 중점추진과제로 제안함
- ‘여성농업인 친화 전북 농촌’의 중점추진과제는 여성농업인을 고려한 정책추진 체계 및 작업환경을 강조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시·군 조례 제·개정’, ‘임대 농기계 현장 교육·대행 인력 지원’으로 구성됨
- 전략과제 ‘함께 성장하는 전북 농촌’ 추진과제는 여성농업인의 농업인·농촌 주체로서 성장 가능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중간지원조직 강화’, 여성농업인의 유·무형자원의 공유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공동체 활성화’, 여성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지역경제활동 지원’이 중점과제에 해당됨



〈그림 5-1〉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비전 및 전략과제

〈표 5-1〉 전략과 과제의 단계적 설정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비 고	
평등한 전북 농촌	①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강사 육성 ② 전북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③ 전북 여성농업인 구술 아카이브	2023년~ 2022년 2024년~	중기 단기 장기
여성농업인 친화 전북 농촌	①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② 시·군 조례 제·개정 ③ 임대 농기계 현장 교육·대행인력 지원	2023년~ 2023년~ 2021년~	장기 장기 단기
함께 성장하는 전북 여성농업인	① 여성농업인 중간지원조직 강화 ② 여성농업인 공동체 활성화 ③ 여성농업인 지역경제활동 지원	2022년~ 2022년~ 2021년~	단기 단기 단기

〈표 5-2〉 정책사업 우선순위

전략과제	추진과제	'21	'22	'23	'24	'25	'26	'27	'28
평등한 전북 농촌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강사 육성								
	전북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전북 여성농업인 구술 아카이브								
여성농업인 친화 전북 농촌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시·군 조례 제·개정								
	임대 농기계 현장 교육·대행인력 지원								
함께 성장하는 전북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중간지원조직 강화								
	여성농업인 공동체 활성화								
	여성농업인 지역경제활동 지원								

2. 전략과제

1) 평등한 전북 농촌

가)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육성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업·농촌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0년부터 농촌 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교육주관으로 양성평등 정책 이해, 남성중심의 농업·농촌 성인지감수성 훈련, 성평등 사례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농식품 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확대를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음
- 전북 농업·농촌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하는데 중앙 교육의 물리적, 인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마을 특성별 양성평등 문화를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가 필요함
- 마을단위 성평등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성평등 강사를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주최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 또는 교육기관
- 사업내용 : 전북 농업·농촌사회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성평등 교육확대를 위한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주요내용

- 사업명 :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육성사업
- 사업대상 : 전북 농촌 여성
- 사업운영기관 :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 또는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 체결
- 교육과정 내용
 - 전북 농촌사회 양성평등 문화 및 인식조사
 - 전북 현장 중심 성불평등 관련 사례 발굴
 - 전북 농촌마을형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 목표, 방향 수립, 교육콘텐츠, 교육자료 등 개발
 - 일반인(남성농업인 포함)
 - 여성농업인
 - 농촌지도자
 - 농촌 청년 등
 -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양성’,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플러스 교육’ 과정
- 교육과정 추진 및 관리
 - 초기단계
 - 교육과정 운영: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양성과정(총 120시간, 연 2기),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플러스 교육(총 10시간, 연2기)
 -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 이수자에 한해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로 활동 가능(수료증 발급)
 - ※ 연 1회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역량 강화 교육’ 필수
 -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인력풀 구축
 - 찾아가는 농촌마을 성평등 교육 운영(2인 1조) - 활동비 지원
 - 교육기관 내 전담 인력 배치(주 5일, 일 6시간 근무제에 따른 수당 지급)
 - 안정단계
 - 공공기관, 유흥시설 내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센터’ 운영
 -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교육 과정 운영(농촌마을 성평등 강사양성 교

육, 강사 보수교육 운영 등)

-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DB 구축 및 파견·관리
- 강사 양성 교육 과정 강사로 '전북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 활용
- 전북 농촌 성불평등 사례 발굴 및 교재·교구 개발
- 인원구성 : 농촌마을 성평등 강사(강사비 및 활동비), 센터업무담당자(계약직)
- 워크숍, 포럼 지원
- 지원내용 :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

■ 참고사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양성평등진흥원 농촌형 성평등 강사 육성교육
- 충북여성재단 '성평등 전문강사 플러스과정'
 - 2020 성평등 전문강사 플러스(전문과정) '집콕하면서! 사무실콕하면서! 즐기는 성평등 교육'
 - 교육대상 : 충북여성재단 성평등 위촉강사, 도내 성평등 및 폭력예방 강사
 - 교육내용
 - 1) 1일차 : 코로나가 드러낸 차별과 혐오
 - 2) 2일차 : 젠더 교육과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 3) 3일차 : 온라인 강의, 학습자와 연결되는 강의스킬
 - 교육비 : 무료
 - 교육인원 : 30명



2020 성평등 전문강사 플러스(전문과정)

집콕하면서! 사무실콕하면서! 즐기는 성평등 교육

일시 : 2020. 09. 21 (월) ~ 23 (수) | 실시간 온라인 강의(ZOOM)

교육 일정	교육 신청 및 접수
9. 21 (월) 18:30-21:30 <코로나19가 드러낸 차별과 혐오> - 김지희(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신청기간 2020. 9. 9 (수) ~ 9. 20 (월) 까지
9. 22 (월) 18:30-21:30 <변다 교육과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 문보라(연세대학교연구소 이학 연구원)	교육대상 · 충북여성재단 성평등 위촉강사 · 도내 성평등 및 폭력예방 강사 등 교육인원 30명
9. 23 (수) * 15:00-18:00 <온라인 강의, 학습자와 연결되는 강의 스킬> - 김승미(콘텐츠월드 대표)	교육비 무료
* 18:30-21:00 <온라인 강의, 학습자와 연결되는 강의 스킬> - 김승미(콘텐츠월드 대표)	접수방법 충북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구글 워크 문의 충북여성재단 교육사업팀 (043-285-2427)

충북여성재단

나) 전북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업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사회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변인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음
- 농업주체이자 농촌사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전북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여성농업인의 인식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일시 : 연 1회
- 사업내용 : 전북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북 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행사 개최

■ 주요내용

- 사업명 : ‘전북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 사업추진절차
 -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개정(전북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 기념행사 개최
 - 전북 여성농업인, 우수 동아리 시상식
 - 여성농업인 포럼, 세미나
 - 전북 여성·고령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아이디어 경진대회
 - 공연, 전시 등

■ 참고사례

-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 (매년 10월 15일 (2020년~))

다) 전북 여성농업인 구술 아카이브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북 농업·농촌의 역사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삶을 기록하는 생애 구술사는 전북 농촌의 발전과정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성평등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촌사회의 고령화·과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각종 기억과 생활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삶을 기록하여 현재에서 미래세대로 전승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5개년)
- 사업주최 : 전라북도, 시·군
- 사업주관 : 공모선발(관련 기관·단체)
- 사업내용 :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을 재조명하며 성평등 문화에 기여하고 농촌사회의 역사를 기록

■ 주요내용

- 사업명 : 전북 여성농업인 구술 아카이브 사업
- 사업추진절차
 - 전북 여성농업인 생애 구술사 연구조사
 - 전북 여성농업인 구술 DB 구축
 - 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 전북 여성농업인 친화마을 조성
 - 전북 여성농업인 백서 발간

2) 여성농업인 친화 전북 농촌

가)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업·농촌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평등 농정을 추구하며 2021년 현재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6월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계로 구성된 농촌여성정책팀이 신설되며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시행하는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구성됨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안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함
- 중앙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의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전북 농업·농촌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전담인력 배치가 요구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전북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제도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 주요내용

- 농업정책과 (가칭)‘여성농업인정책팀’ 설치
- 근거법령 :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6조(지원체계)
 - 제6조(지원체계)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인력규모 : 2명

○ 도 여성농업인정책 업무내용

- 운영내용 : 기획 및 총괄, 양성평등, 여성농업인 복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단체 지원·협력, 시·군 여성농업인정책 추진 지원 등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
- 전북 여성농업인의 날 운영 및 관리
- 여성농업인정책 성과 관리

○ 시·군 여성농업인정책 업무내용

- 전담인력 배치
-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
- 해당 시군 여성농업인센터 관리
-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설명회 개최 및 관리

■ 참고사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 시·도별 전담부서 설치 현황

- 6개 지방자치단체와 4개 기초자치단체

구분	지자체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광역	강원도	농촌인력팀 여성농업인 담당 전문관 지정(1명)
	충청북도	농업경영팀 내 전담인력(1명)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전담인력 (2명)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전담인력(2명)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여성청년농업인담당, 전담인력(2명)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전담인력(3명)
기초	강원도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팀, 전담인력(2명)
	충남 부여군	여성농업인 전담인력(1명)
	충남 아산시	여성농업인 전담인력(1명)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전담인력(2명)

○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 여성농업인지원팀 업무 총괄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적농업 관련 업무,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민수당, 농부병 지원, 기타 여성농업인 지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단체 지원·관리, 여성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출산농어가도우미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관리

나) 시·군 조례 제·개정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정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조례 제·개정을 독려해야 함
- 중앙 및 도 여성농업인정책·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산재된 운영으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직면한 여성농업인 관련 안전 및 문제를 심도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 사업내용 : 시·군 여성농업인 관련 안전 및 문제의 심도 있는 논의·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개정

■ 주요내용

- 전라북도 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개정
 - 도, 시·군 여성농업인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시·군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개정함
-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현황¹³⁾
 - 전국 조례제정 지자체 : 123개 시·군·구
 - 전북 조례제정 기초자치단체 : 11개 시·군
 - ◆ 2018년 이전 제정(8개) :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고창군, 군산시
 - ◆ 2020년 : 부안군, 진안군, 완주군
 - ◆ 조례 제정 필요 시·군 : 무주군, 장수군

13)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 여성농업인 정책 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

○ 조례 개정 내용(예시)

-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제2조제4호 개정이 필요함
 - ◆ 제2조(정의) “여성정책”이라 함은 「여성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여성정책”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말한다.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근거로 시·군 조례에 ‘양성평등 강화’ 포함 필요
 - ◆ 가족공동경영협약, 마을단위 성평등 교육 등 관련 내용 포함
 - ◆ 경상남도 :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련 내용 포함
- 여성농업인의 증가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문제에 대한 ‘안전’ 강화 포함 필요

다) 임대 농기계 현장 교육·대행 인력 지원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영농활동의 기계화에 따른 여성 및 고령농업인의 농기계 사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임대 농기계 조작의 어려움으로 농기계 사고는 여전히 안전한 농업활동 환경은 여성농업인 정책 중 중요한 하나임
- 현장에서 여성 및 고령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교육하거나 작동 대행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고령농업인, 일정면적 미만 농지를 경작하는 여성농업인에서 단독 경영주, 청년여성농업인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여성 및 고령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을 높이며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노동 경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최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시·군
- 총사업량 : 14개 시·군별 1개소
- 사업내용 : 여성 및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노동경감을 위한 현장에서 임대 농기계 교육 또는 대행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사업명 : 임대 농기계 현장 교육·대행 인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작농(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 주요내용
 - 일반 농기계를 우선으로 하며, 고령농업인의 경우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포함
 - 농기계 현장교육 또는 대행서비스 제공
 -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추가 가능

3) 함께 성장하는 전북 농촌

가) 여성농업인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강화

-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북 또는 시·군 내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경험 및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내 네트워크 및 조직이 요구됨
- 개개인의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하고 여성농업인 주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현재 여성농업인이 접근성이 높은 여성농업인센터를 중간지원조직으로 활용이 필요함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양성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농업 코디네이터 양성과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관련 정책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농촌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의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이끌 수 있도록 농업현장을 이해하고 여성농업인을 지도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가 필요함
- 전북은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양성은 여성농업인 개인의 역량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주최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내용 : 농업 부문에서 여성농업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농업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를 증진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을 교육 및 지도하는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를 양성

■ 주요내용

- 사업명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양성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교육과정' 기획
 - 교육과정 개발위원 구성: 도·시·군, 여성농업인, 전문가 등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 대상 : 전북 농촌여성
 - 인원 : 5명
 - 교육시간 : 총 50시간
 - 교육운영기간 : 상하반기 1회 운영(연 2기)
 - 이수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DB구축

■ 참고사례

- 나주시 농업경영 코디네이터¹⁴⁾
 - '농업경영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운영(2020년~)
 - 역할 : 농사·농기계 사용법, 건강관리, 농정시책 홍보·전달, 농업 현장 고충 창구
 - 교육기간 : 총 15회 (주 1회, 2시간)
 - 교육기관 : 농업기술센터
 - 활동방법 : 600여개 마을에 농업경영 코디네이터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농정원, (운영기관) 공모선발

14) 2021 여성농업인 정책 자료집. 농림축산식품부.

- 양성 교육
 - 대상 : 여성농업인
 - 인원 : 60명(20명*3기)
 - 주요내용 : 기초농업교육, 농기계 및 농작업 편의장비 교육,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농업인 복지 및 교육제도, 양성평등 교육, 현장교육 및 실습
- 운영
 - 대상 : 여성농업인
 - 교육방법 : 1팀(2인 1조)당 1일 2개 마을 순회 교육
 - 교육시간 : 1개 마을당 2시간
 - 교육 인원 : 800개 마을, 8,000명 교육

- 사업명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활용방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주최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 사업내용 : 전북 여성농업인의 전문성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활동 지원

■ 주요내용

- 사업명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활용방안
-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활동
 - 활동대상 : 여성농업인
 - 활동방법 : 팀(2인 1조)의 마을 순회 교육 또는 파견
 - 활동시간 : 마을 순회 교육(2시간)
 - 지원내용 : 활동비 지원
- 거점 여성농업인센터 지정
- 초기 단계
 - 거점 여성농업인센터에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1명 배치하여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DB구축 및 관리
 - 필요 지역 또는 요청 지역을 대상으로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파견
 - 사후 관리
 - 일 6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 지원
- 안정 단계
 - 공공기관, 유휴시설 내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센터' 설치·운영
 - 담당 업무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양성 및 파견사업 홍보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DB 구축 및 관리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보수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 전북 여성 농업현장 전문가 파견 및 사후관리
- 업무담당자 : 계약직으로 고용
- 지원내용 : 인건비(계약직), 운영비, 시설비 등

○ 전북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적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농촌)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니즈에 대응하여 이들의 생활수준과 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주최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내용 : (농촌)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니즈를 반영한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활수준과 경제 여건 향상

■ 주요내용

- 사업명 : 전북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사업
- 전북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사업 운영
 - 지역별 여성농업인 교육수요 조사
 - 기초역량, 선호 교육주제, 참여의향 등
 -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 문화·여가프로그램, 농업이외 직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센터와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MOU를 통해 순회 강사진 확보 또는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이수자 활용
 - 여성농업인센터 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찾아가는 교육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에 한해 가능
 - 농업이외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교육과정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 기초 교육 :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강사진 초청 집합교육

· 자격증 관련 교육의 경우, 심화교육은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운영

- 지원내용 : 인건비, 교육운영비, 교육자재지원비, 교육비 등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참여자 활용 방안

- 강사진으로 활용

- 문화·여가프로그램, 농업이외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초

- 활동비 지원

■ 참고사례¹⁵⁾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청년 여성농업인 멘토 학교’

- 교육과정명 : ‘2020 청년 여성농민, 비빌언덕과 만나다’

- 교육목표 :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비전을 (예비)청년 여성농업인에게 제시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경험과 사례 공유를 통해 학습하고 정책·기술·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 교육대상 : 청년 여성농업인과 예비 청년 여성농업인

- 교육기간 : 2020년 5월 1일 ~ 11월 30일

- 교육일정 : 멘토 워크숍, 입학식, 팀모임, 온라인강의, 졸업식

- 교육내용 : ‘여성농업인 정책, 제대로 활용하기’,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생태농사의 실재’, ‘귀농으로 통하는 문’, ‘희망을 만드는 여성농민’, ‘청년여성농업인으로서 성장방향과 역할’, ‘생태농업에 대한 이해’, ‘가공에 대한 이해’

- 자격요건 : 창농업·귀농 5년 이내 정착 초기단계 청년 여성농업인, 창농업·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청년 농업인

15) ‘20년 농업경영인 능력향상교육 기획공모-청년 여성농업인 멘토학교 교육과정 변경사업계획서’ (전여농 내부자료)

- 사후관리방안 : 기별 동문 모임 운영, 멘토-멘티 모임 진행, 수료 2년차를 위한 보수교육 운영

20년 청년 여성농업인 멘토학교

**청년 여성농업인,
비밀 연덕을 만나다!**

교육생 모집

여성이라서 귀농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분!
여성농업인 멘토를 만나 비밀 연덕을 만들어 보세요.

청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멘토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는 멘토들을 만나
귀농에 필요한 기술과 정책,
농촌 생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모집기간 6월 15일(월) ~ 7월 3일(금)

교육내용

- 농한국 농업농촌의 현황과 변화, 농업의 가치 여성농업인의 역할
-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정책, 상인지 감수성 갖기
-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청년 귀농 사례
-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 여성농업인이 꿈꾸는 농업의 변화

교육일정

1기 대상 : 청년 여성농업인(귀농 5년 이내의 여성농업인)
일정 : 7월 17일~18일(금.토), 8월 11일~12일(화.수), 11월 6일~7일(금.토)

2기 대상 : 예비 청년 여성농업인(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여성)
일정 : 10월 9일~10일(금.토), 10월 20일~21일(화.수), 11월 6일~7일(금.토)

지원방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홈페이지(<http://www.kwpa.org>) 또는
연내여성농민회총연합회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sistersgarden.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unyeonong@gmail.com)로
접수 또는 신청 링크에서 작성

문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2-582-3326

나) 여성농업인 공동체 활성화

- 농업·농촌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 개인의 역량으로 모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농업·농촌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여성농업인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농촌공동체의 주체로서 적응·정착할 수 있는 장 마련이 필요함

○ 전북 농촌 품아이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공동체 구성원의 재능을 교환하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이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노동·재능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합·연대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가능함
- 여성농업인과 농업인의 유·무형 자원을 상호 대여·교환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농촌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유경제를 실천의 장 마련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주최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의 재능과 유·무형 자원을 제공자와 사용자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유자원거래를 통해 농촌공동체 경제 활성화 가능한 장 마련(생활밀착형 자원공유 O2O 서비스)

■ 주요내용

- 사업명 : 전북 농촌 품아이사업
-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의 유·무형자원을 공유하여 사용자와 제공자 간의 지역 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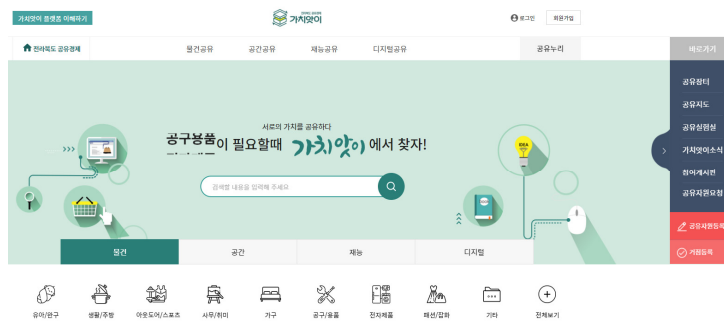
○ 품아이사업 운영 체계

- 농촌 유·무형자원 공유 플랫폼 운영
 - ‘품아이’ 공유플랫폼 마련(‘품아이 공유’)
 - 기존 공공기관 웹 사이트, 앱 등을 활용하여 플랫폼 운영(전라북도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공유경제플랫폼 ‘가치앗이’, 전라북도 공공생활앱 등)
 - 공유자원 : 노동, 생활돌봄, 물건, 공간, 재능 등
 - 공유금액 : 품아이 포인트
- 품아이 이용방법
 - 사용자를 위한 제공자 정보 게시
 - 공유희망자를 위한 정보 게시
 - 게시내용 : 공유자원, 보유자원 제공자/공유희망자의 위치, 공유금액, 공유 상세정보, 이용후기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제공자-사용자간 공유자원에 따라 해당 품아이 포인트 교환
- 품아이 포인트제
 - 품아이 포인트 구입 가능(단, 취약계층에 한해 월별 일정 포인트 제공)
 - 유·무형자원 제공에 따른 포인트는 일정금액이 되면 제공자 해당 지역화폐로 교환(자원별 포인트 책정)
 - 상한반기 우수 공유자에 한해 인센티브 제공

■ 참조사례

○ 전북공유경제플랫폼 ‘가치앗이’

- <https://www.jbshare.kr/index.do>
- 목적 : 자원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결하여 공유자원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 공유장터 구성 : 물건공유, 공간공유, 재능공유, 디지털공유
- 공유지도 : 자신의 위치에 근접한 보유자원 위치를 제시



○ 생활밀착형 심부름 O2O서비스 '김집사'¹⁶⁾

- 2018년 서비스 제공
- 14개 영역에 걸쳐 심부름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 가능
- 서비스 범위: 음식, 편의점, 식품 배달 및 생활심부름 전담
- 2019년 12월 기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경기 분당, 판교, 위례 등 500여개 아파트 단지에 서비스 제공



16) 배달 앱 서비스의 새바람, 국민집사 김집사 '주목'(세계일보, 2019.12.17.)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217509236>

○ 여성농업인 동아리 지원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 및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여성농업인간 교류·화합이 요구됨
- 농사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물리적인 제약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에 한계가 있어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 여성들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정책 등을 논의·제안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주최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농사일과 가사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의 교류와 화합의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사업명 : 여성농업인 동아리 지원사업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유사 관심사를 가진 여성농업인 5명 이상 모임
 - 지원방법 : 활동계획안 제출(상반기)
 - 지원내용 : 활동비(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원
 - 활동내용
 -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활동
 - 활동비 지출내역 해당 시·군에 제출
 - 성과평가 : 우수 모임에 대해 차년도 실천활동비 지급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설립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초기 창업·홍보비용 지원, 시·군 공공기관 또는 유흥시설 내 공간 지원 등

다) 여성농업인 판로개척 지원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업·농촌부문에 영농 창업이 초기거나 소작농의 경우, 가장 큰 고충을 소득의 결정적 요인인 판로 개척으로 자주 언급함
- PC와 SNS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소작농과 창농업 초기 농업인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생산물, 가공품 등을 홍보, 판매하고 있으나, 개인 차원의 홍보, 판매에는 한계가 있음
- 도 차원에서 소작농 및 창농업 초기 여성농업인이 판로 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와 판매 가능한 기반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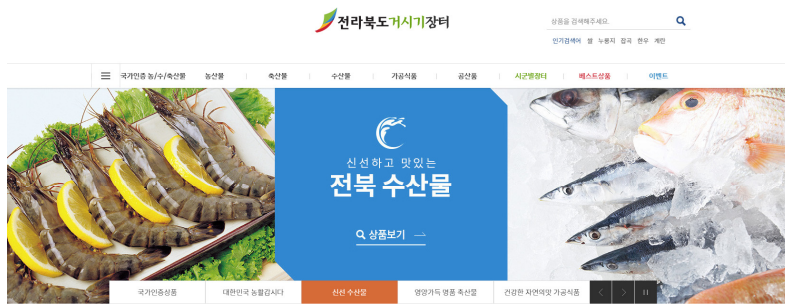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최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소작농 및 창농업 초기 여성농업인의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전라북도 온라인장터를 활용하여 여성농업인의 생산물 판매로 소득 증대

■ 주요내용

- 사업명 : 여성농업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창농업 5년 이하 여성농업인, 고령·여성 소작농
- 지원내용
 - 사업 홍보
 - 입점 업체 선정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협약
 - ‘여성농업인(소작농, 청년·고령, 가공) 상품’으로 입점 지원
 - 전라북도 거시기장터(<https://www.ibplaza.com/#undefinedy379>)
 - ‘여성농업인 장터’ 마련(배너, 상품 분류 등)
 - ‘여성농업인 장터’ 입점 업체 카드수수료 지원

- 우수업체(판매량, 구입 후기 등 활용)에 한해 차년도 배송용품 또는 배송비 지원



AT 농활갑시다 with 거사기장터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종원(2017). 강원도 여성농업인 육성방안. 강원연구원.
- 강혜정(2013).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10(1), 43-62.
- 강혜정·김윤희·박서운(2019).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19).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 공동체 사업을 위한 농촌여성 역량 강화 방안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문희·김태중 (2020).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연구동향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2), 1-28.
- 김하정(2016). 농촌 지역 여성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3), 254-261.
- 백선정·이지선·유혜인(2018). 경기도 농촌지역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안석·엄진영·박지연(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안세아(2020). 충남 여성농업인 일·생활균형 제고 방안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안수영·권용대(2015).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결정요인 분석.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2(3), 277-283.
- 양순미(2019).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리더십에 작용하는 변인과 사회자본의 상대적 중요성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30(4), 615-634.
- 엄진영·최용호·박지연(2018).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미란·박민선·정은미·서정민·박진하(2015).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윤정미·조영재(2019). 농촌복지·여성(청년)농업인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정책개발. 이슈리포트(2019.04). 충남연구원.

이종운·김영숙(2015). 농촌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4(2), 67-102.

조경옥(2016).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적 함의. 전북연구원 정책 브리프, 10.

진혜민(2019).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최정신·최윤지·윤순덕·김수림·한송희(2017). 농촌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유형 별 특성 및 교육프로그램 요구 분석. *대한관광경영학회*, 32(6), 293-315.

최정신·최윤지·윤순덕·김수림·한송희(2017). 농촌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영향 요인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28(4), 641-651.

태희원(2017). 충남 농촌여성 지역사회 참여 사례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태희원(2018). 충남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 개발원.

황미진·윤순덕·최정신(2017).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농촌 지도와 개발*, 24(3), 155-172.

농림부(2000).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2000).

농림부(2006). 2006~2010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2011).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2015). 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전라북도(2011). 제3차('11~'15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안).

전라북도(2016). 제4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안).

전라북도(2017).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전라북도(2018).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전라북도(2019).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전라북도(2020).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정책연구 2021-01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1년 4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21-6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